(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70–871 1982년 7월 9일(금) & 1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ly 9 & 10, 1982

◆금주말 결혼70주년을 맞이하는 베시와 제시·포터부부. 두부부가 열렬한 야구팬들이다. 제시는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비결은 건강과 신이 미리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말했다.

교포인구 통칭5만명은 과장?

한국어이해자 불과 1만7천

작년도 전국 인구조사에서 밝혀져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으로 아직도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전 캐나다에 17,100명이 있다.

이같은 숫자는 81년 여름에 실시된 전국인구조사에서 밝혀졌다.

6일 인구조사를 담당한 캐나다통계국 통계관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한국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금년말 또는 내년도에 가서나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통계국은 영·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중국어등 다수사용언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조사했으나 한국어 같은 소수민족언어에 대한 설문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통계국의 설문은 "귀하가 어렸을 때 배워서 아직도 이해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 였다.(What is the language you first learned in childhood and still understand?)

어려서 한국말을 배워 이민왔으나 현재 이해 못하는 어린이, 또는 이곳서 태어나 영어를 주로 배운 자녀들은 "한국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캐나다교포인구를 보통 5만이라고 말하는 것(※한인총연합회)과 비교하면, 한국어 이해자 17,100명은 의외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 통계는 1)5만명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또는 2)설문 답변자가 한국말을 이해하는 자녀를 한국어 이해자에 포함하지 않고 영어 또는 불어 이해자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10년마다 대규모로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응답을 안한 교포는 거의 없다.

만일 「5만명」설이 사실이라면 세대수는 1만2천세대로 추산되며 1세대에서 최소한 부부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볼 때 적어도 2만4천명이 한국어를 이해한다고 답변했어야 옳았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세대의 가족수는 4.3명, 이민 오는 세대의 가족수에 관한 통계는 없으나 4명으로 보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국은 캐나다의 모든 세대에게 일률적으로 모국어에 관해 물었으나 출생국에 관한 질문은 5세대당 1세대를 무작위로 골라 질문했다. 이 조사결과가 밝혀지면 한국계 인구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계결과에서 한국어 사용자가 많은 곳은 온타리오주로 10,860명, 전체 한국어 사용자의 64%에 달했다. 두번째 주는 브리티쉬·콜럼비아주로 2,605명, 3위는 에드몬톤과 캘가리가 있는 알버타주의 2,445명, 4위는 퀘벡주 585명으로서 대체적으로 알려진 한인인구 배포상태와 일치했다.

한인들은 동부 해양주중의 하나인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를 제외한 전국 9개주와 2개의 통치령에 모두 퍼져있다.

◆지역별로 본 한국어 이해 인구.

온타리오주	10,860명
브리티쉬·콜럼비아	2,605
알버타	2,445
퀘벡	585
마니토바	410
사스카치완	85
노바·스코셔	45
뉴펀드랜드	20
뉴브룬스위크	20
유콘(Yukon)	10
노스웨스트·테리토리	10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국장 : 송 광 호

WORLD CUP 1982 준결승 전적

폴랜드 0 : 2 이태리
서독 1 : 1 프랑스
(8일 오후4시 현재)

점차 노인국가화

중간연령 30세로 올라

(오타와)캐나다는 점차 노인의 나라가 되고 있다.

6일 발표된 작년 여름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전부터 계속된 출생률 감소로 연령별로 본 중위점(Median)은 29.6세 였다. 이것은 29.6세를 기준으로 캐나다인구중 절반은 그 이상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이하 연령자임을 뜻한다.

18년후 서기 2천년에는 출생률이 격증하지 않는한 연령 중위점은 36세가 되어 2명중 1명이 36세 이상의 중년–노년층에 속한다.

1900년도의 중위점은 20세였고 30년대에는 27세였다가 61년도에는 2차전후의 베이비·붐에 따라 26.3세로 떨어졌다.

작년도에는 10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전국인구조사가 있었다.

캐나다통계국을 관할하는 잔·작·블레 조달성장관은 국가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증가시켜야하며 학교에 대한 지원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알버타주만은 어린이 인구가 증가했다. 캐나다를 비롯, 유럽등의 공업국에서는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져 산업계는 노인을 위한 제품생산에 눈을 돌리고있다. 이혼 부모를 가진 어린이는 50만명으로추산됐다.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전인구는 2,434만명(한국의 80년 인구는 3,800만명)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20만명이 많다.

●인구는 76년 소규모 인구조사때보다 5.9%가 늘었다. 15세 미만 아동수는 7%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자는 17.9%가 증가.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은 50만명으로 76년의 30만명보다 무려 20만명이 늘었다.

●결혼자 역시 47.7%에서 49.1%로 증가.

●가정(family: 편집자주 참조)당 가족수는 3.5명에서 3.3명(한국은 4.3명)으로 감소.

●총 828만 가구(household: 편집자주 참조)가 평균 2.9명을 가졌다. 76년도에는 3.1명씩이었다. 2명이하의 가구수는 전체의 49.3%, 4명 이상 가구수는 14.6%.

●개인소유 주거구조물중 57.2%는 싱글·디태치 주택(1세대 거주용 주택으로 옆집과 간격을 두고 지은 집).

아파트는 주거의 25.3%를 차지했다.

●국민의 62.1%는 자기소유의 주거물에서 산다.

(편집자주: 가정(family)이라함은 부부 또는 홀몸의 남·녀 + 자녀를 의미한다. 이 자녀는 연령불문, 결혼한 사실이 없이 같은 주거물에서 사는 경우. 할아버지·할머니는 같이 살더라도 가족으로 계산되지 않고 동숙자(lodger)로 취급된다.

가구(household)는 한 주거물에서 살며, 캐나다내에 다른 주거지가 없는 1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보통 가정을 이룬 가족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주거물을 여러 가족이 이용할 때, 또는 가족 관계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살 때도 한 가구로 계산된다. 인구조사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1개 가구에만 포함된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주택보조금 조건 대폭 완화

무보험·헌집에도 최고 $8천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정부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에 주는 $5,000까지의 무이자융자혜택 기한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할 것과 새집뿐 아니라 헌집을 사는 첫 주택구입자에도 혜택을 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새 예산안에서 새집을 사는 사람과 첫 집장만자에 대한 $3,000 무상지급혜택과 합치면 금년내 집을사는 온타리오 주민은 최고 $8천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7일 폴·코스그로브 연방주택상은 오는 16일 온타리오주의 글로드·베넷 주택상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한다. 베넷 온타리오주 주택상은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그로브 연방주택상은 또한 연방정부의 $3,000 지급혜택에서 문제가 돼온 1)보험든 모기지일 경우 2)지역별 집값의 한도액 조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업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3,000보조금이 효과없다고 불평했었다.

메트로·토론토의 경우 $15만 이하, 미시사가, 브램톤, 옥빌, 윗비등 토론토교외지역의 경우 $10만 이하짜리 집으로 제한됐던 종전의 조건을 확대, 토론토교외를 포함한 전지역이 $15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로써 온타리오주의 $5천 무이자 융자와 연방정부의 $3천 무상지급의 가격한도가 같아졌다.

코스그로브장관은 6월28일 새 예산안발표 이후 이루어진 매매는 모두 소급해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돈만 벌고 직장 안준다"

뉴욕시에 한인배척 벽보

(뉴욕지사)교포업소 밀집지역인 뉴욕시 할렘125번가에는 최근 『한인들을 배척하자』라는 내용의 벽보가 상당수 나붙어 지역사회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한인상인들을 다시금 긴장시키고 있다.

흑인교회단체, 흑인지역사회 어머니등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된 이 벽보내용은 「한국인들은 흑인지역사회에 진출하여 가게를 열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매주 수백만달러를 흑인지역사회로 부터 거둬들인다. 그들은 흑인청소년들에게 직장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전방지고 흑인들을 개처럼 취급한다. 한국인들은 흑인들의 경제를 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Koreans go home」이라고 외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125가 한인상인번영회의 김원덕회장은 『흑인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기타의 도움을 청할때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서로 이해하고 나가는 방향을 취해야지 감정적으로 행동해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곧 이지역 한인상인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토의하고 지역사회의 관계자들과 적절한 사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으로 돌아가라(GO BACK TO KOREA)—지난달 LA 교포의 건강식품업소에 방화사건과 함께 나붙은 쪽지. 흰종이에 검은 글자를 오려붙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피해액은 약$6만이었지만 인종문제를 안은 고의적 방화였다는데서 문제가 컸다. 피해자 조모씨는 전에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이 봉급관계로 신문사, 이민국등에 자신을 비방하는 편지를 내고 가게앞에서 불매운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고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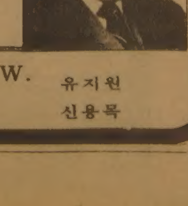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한양 중·공고

임시총회 소집

동문제위!

훤뫼에 높고도 푸른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맘으로…

어언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했고 우리들 이 이민생활은 안정기반에 들어 섰읍니다.

이제 도약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협동의광장으로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양중·공고 동문은 한자리에 모입시다.

일 시 : 1982년7월31일(토) 밤11시
장 소 : 뉴서울식당 2층(529 Bloor St. W)
안 건 : 1. 회장및 임원선출의 건
2. 가족동반 야유회 건
3. 기타 토의 사항
※재캐나다 거주 동문은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오석 534–3648
김덕기 532–1054(제일식품)
김영상 459–3363
박인순 533–3545

한양중·공고
동문회장 김 오 석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야구장에서도 맥주를

보수당정부 단안, 하키는 제외

밥퇴 신민당 당수가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운동장의 음주문제가 해결돼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야구, 축구를 보면서 맥주도 마실 수 있게 됐다.

지난 6년간 온타리오정계의 이슈가 돼왔던 운동장음주문제가 보수당정부의 단안으로 야당측의 환영속에 해결됐다.

7일 로버트·웰지 소비성장관에 의해 발표된 이 계획은 다음주 주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에는 문제없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맥주를 1번에 2병에 한해 프로야구, 풋볼, 축구경기장등이 있는 토론토, 해밀톤, 오타와의 옥외경기장에서만 [illegible] 한다.

따라서 실내경기장 메이플립스 가든이 신청했던 맥주판매허용안은 이번 계획에서 탈락, 하키팬들을 실망시켰다.

블루제이스의 하워드·스탁맨 대변인은 "매우 기쁜 일이다. 북미에서 프로야구가 있는 26개지역중 토론토팬들만 경기중 맥주를 못 마셨다"고 말했다.

라밧트의 블루제이스, 몰슨의 블리자드등 캐나다에서 프로스포츠는 구단주가 대부분이 맥주회사이나 지금까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자기회사팀을 구경하려온 손님에게 맥주대접을 못했었다.

체육대회, 준비 착착 진행

복권판매·연예인 쇼는 규모줄어

오는 8월14일 센테니알메인 스타디엄에서 열릴 제2회 전 캐나다교민 체육대회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14면 광고 참조)

6일 이병권체육회장에 의하면 경기종목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며 씨름만 추가되고, 경비가 많이 들었던 연예인초청쇼는 규모를 축소, 토론토지역 연예인들로 대치할 예정이다.

이회장은 금년도 체육대회는 작년의 경험을 살려, 치밀한 계획하에 빈틈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거행될 체육대회는 아침8시30분 입장식으로 시작, 밤8시30분에나 끝이 난다.

이번 대회의 특색중 하나는 한국왕복항공표(서울여행사제공)등 경품이 걸린 복권판매. 금년대회 예산을 4만5천달러로 잡은 체육회는 복권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영사관등(작년 6천달러 보조)의 협조로 충당할 예정이다.

개인,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인이면 출전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다.

한편 체육회는 그동안 체육대회 진행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황주빈씨에 6일 감사패를 증정했다. L.A.에서 L.A.체육회 부회장등을 지낸 황씨는 수년전 토론토로 이주했었다. 황씨는 오는 7월말 다시 L.A.로 이주한다.

이번 2회 체육대회는 민중신문사 주최 어린이축구대회와 장소및 일정이 겹쳐 진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알라스카 개스관 설치 고금리로 무기연기

알라스카 송유관에 이어 천연개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는 야심만만한 미국정부의 계획은 고금리 때문에 무기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4백30억 달러(약 31조원)가 소요될 이 계획은 게다가 에너지 수요의 감퇴현상때문에 무기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주한미대사관 전기누전 화재

(서울)지난3일 낮 12시30분께 주한미대사관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 사무용집기만을 태운후 10분만에 진화되었다.

화재발생 5분만에 5대의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미군부대소속 소방차도 출동했으나 도착전에 불은 이미 진화되었다.

콜럼비아號 4차飛行성공

우주왕복실험 본격화 될듯

(에드워즈공군기지) 콜럼비아호가 4일 제4차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귀환함에 따라 이제부터 실질적인 우주왕복선실험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앞으로 계획된 잡다한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있느냐하는 문제는 제5차 여행에서 판명될것으로 보인다.

우주왕복선임무중하나에는 2개의 대형통신위성을 우주에 운반하는 일이있다. 우주선은 통신위성을 화물실에 싣고 지상을 출발, 고도 1백85마일상공에서 각각 더높은 궤도에 발사하게된다.

오는11월11일 콜럼비아호의 5차비행은 4일간의 짧은 일정이긴하지만 우주비행이 더욱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수송시스템이란점을 보이는 중요한 실험이 될것이다.

콜럼비아호는 앞으로 20년간 총1백회의 우주왕복비행을 한다.

◆ 바로잡습니다 ◆

7월7일자 본지 제2면에 실린 강형재군 수석 졸업 기사중 "13학년"은 "9학년"의 잘못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한맘교육강좌>

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글교육①

조 성 준(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조성준 씨

1) 서 론

복합문화를 사회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한국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 한글과 말을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가르쳤을때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또 다른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자기들의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물려주고 있는 것인지? 복합문화란 무엇이고, 복합문화정책이 왜 소수민족들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이 집단으로서, 또 개인적인 면에서 왜 중요한 것인가?

이상의 질문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

우선 말과 글의 중요성을 논하려면 언어의 배경인 문화를 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다.

2) 문화란?

약 60년전만 해도 "문화"라는 어휘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같은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던 전문용어였다고 한다. 오늘에는 누구나가 쓰는 어휘가 바로 문화이다. 예를 든다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와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든지, "그 문화권에서는 그런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표현을 흔히 쓰곤 한다.

언어는 그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문화를 보존해주고, 발달시켜 주는 중요요소중의 하나가 바로 언어이다. 문화의 본질을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그 속에는 지식, 요령(skills), 태도, 가치관, 욕구, 음식, 의복, 대화스타일, 관습, 전통, 정신구조, 사회제도등 인생살이(Life Style)가 바로 문화인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간단히 정의할 때 말하기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사물을 보는 견해"를 문화라고 한다. 한 예를 든다면, 뉴 멕시코지역에서 백인경관 두명이 순찰중에 길에서 심장마비에 걸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스페인 계통의 중년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경관들은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인의 몸에 손을 대고 응급조처를 가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은 경관들이 자기 동족의 여인을 체포하는 줄로 오인을 하여 경관과 집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심장마비에 걸린 여인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다.

문화 속에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있다. 달리 말해, 문화를 말해주는 지도(Cultural map)가 있는데, 그 지도를 잘 읽을 줄 알면 그 문화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사람처럼 행동하라(When you are in Rome you act like a Roman)"는 말이 있다. 그러면 문화라는 조건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무조건 받아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다.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에서는 한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체포하여 노예로 팔아먹고, 북미대륙에까지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던 시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상이며, 동시에 인종적인 면에서의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

◆상품으로 야구글럽(브랜돈스포츠 제공)을 받아든 강용구군.

스포츠 퀴즈

강용구군 1등 당첨

정답은 몬트리얼

제3회 『스포츠퀴즈』"금년도 프로야구올스타전이 열리는 장소는 몬트리얼"이었다.

오는 13일 밤 8시 올림픽스타디엄에서 열리는 올스타게임에서는 북미프로야구 26개팀에서 간추려진 우수선수들이 출전 내셔날리그와 아메리칸리그로 나누어 대전한다.

강타자인 필라델피아의 피터·로즈, 마이크·슈미츠, 캘리포니아로 이적한 레기·잭슨, 다저스의 풍운아 투수 바넨주엘라등이 총 출전하는 이번 올스타게임에 토론토·블루제이스에서는 투수 짐·클랜시가 선발됐다.(올스타게임 상보는 12일자 본지에).

본사는 프로야구올스타게임에 초청을 받아 본사 스포츠담당 유승민기자를 특파, 정관성 몬트리얼 지국장과 함께 다각취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제3회 스포츠퀴즈 정답자로는 윌로데일에 사는 강용구군과 토론토의 임대일군이 선발됐다.

7일 브랜돈스포츠사(대표 이진영)가 제공하는 50달러 상당의 야구글럽을 상품으로 받은 강군은 "뜻밖이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금년에도 내셔날리그의 승리를 예상한 강군은 토론토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며 교포야구클럽 「플레이어즈」를 조직, 코취겸 선수로 활약중이다.

제일여행사(대표 유지원)가 제공한 올스타입장권 2매를 상품으로받은 임군은 국민학교학생, 몬트리얼에 갈 수가 없어 곧 몬트리얼에 사는 친척에게 우송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스포츠퀴즈는 총18명(엽서 15, 전화 3)이 응모, 지난 6일 본사에서 추첨했다.

스포츠퀴즈의 상품을 제공하실 업체는 533-2361로 연락바란다.

교포 김경길씨 뇌암으로 숨져

토론토의 CN 콤퓨터·엔지니어이며 선교교회 장로인 김경길씨(45세·스카보로)가 6개월간 뇌암과 투쟁끝에 지난 28일 세인·마이클병원에서 숨져, 30일 선교교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고 쉐퍼드×영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영결예배는 강재철 목사가 집례하고, 친우 여동원씨가 추도사를 했다.

고 김씨는 11년전에 캐나다 이민, 지난 1월 발병, 여섯달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

유족으로는 노모와 미망인, 2남2녀가 있다.

담배피우면 성충동 약화

미교수팀 니코틴의 단기적 영향연구

(플로리다)흡연은 건강에 해로울뿐 아니라 성적충동을 억제할지도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교수인 리처드·L·하겐박사연구팀은 18세에서 44세 사이의 42명 남성들을 대상으로한 실험에서 니코틴함량이 많은 2개비의 담배흡연이 남성의 성적반응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실험대상자에게, 각각 전자장치를 설치해놓고 2편의 성영화를 상영시켜주어 그 감응도를 조사한 결과 니코틴함량이 높은 담배를 피운 그룹이 니코틴함량이 낮은 그룹이나 담배대신 캔디를 먹은 그룹보다 두번째 상영된 성영화에서 성적감응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원상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겐박사는 회견에서 『이번 연구는 니코틴이 단기간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지, 성적무기력상태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연탁 초청 강연

천주교 노인회서

천주교 한맘노인회(회장 김성근)는 오는 11일 하오3시 장연탁(조각가)씨를 강사로 초빙, 「종교미술의 감상」이라는 연제로 강연을 듣는다. 장씨는 유럽과 남미를 여행하며 찍은 유명 작품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매달 월례회때 각계 인사를 초빙, 강연을 듣곤 했던 천주교노인회는 이번부터 월례회 장소를 천주교 한맘회관으로 옮긴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미국인"아들이 더 좋아"

첫아들 희망은 45%·첫딸은 20%

(프린스턴, 뉴저지)미국여성들은 아이를 가질 경우 딸보다 아들을 낳기를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프린스턴대학 연구학자들이 밝혔다.

전국의 여성들중 여성의 지위에 관해 진보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까지 포함한 3천4백명을 대상으로한 자녀의 성별기호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45%가 아들을 먼저 낳고 두번째로 딸을 낳겠다고 답했다. 20%는 딸을 먼저 갖겠다고 말했으며 나머지 35%는 자연의 순리대로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않겠다고 답했다.

인구통계학자 찰스·웨스터프는 자녀의 성을 미리 선택하는 임신법이 적어도 10년전부터 널리 쓰이고 있지만 아들선호경향에 따라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우려했다.

朴대통령 暗殺사건 다룬

픽션 「THE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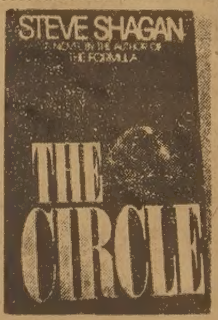
스티브 쉐이간작, 국제첩보물

중앙정보부·미CIA·마피아등 암약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미국의 CIA, 그리고 이태리 마피아단의 활동을 주제로 한 소설 「The Circle」이 출판됐다.

스티브·쉐이간이 쓰고 뉴욕의 페리고드·프레스사가 발행한 이책은 워싱턴 CIA본부 수정관과, 서울 궁정동 그리고 시실리섬의 대규모 헤로인 공장을 무대로 벌어지는 국제첩보및 정보활동을 그렸다.

줄거리는 79년부터 81년 사이 미국 CIA총수인 법무차관 필·리치, 중앙정보부요원 순이·선지양 그리고 암흑가의 여왕 클라우디아·카시니가 인류를 아마게돈으로 몰아넣은 유명인물을 이름이 있는 FBI기밀 문서를 찾는것.



특히 세인을 이목을 끌었던 박정희대통령암살사건과 코리아게이트의 박동선 사건도 픽션으로 쓰고 있다.

영광겹친 오인택군

수석졸업과 UT장학금

◆오인택군.

웨스트웃·세컨더리 스쿨을 졸업하는 인택군이 토론토대학에서 받게 될 장학금은 연 $1천이다.

8년전 14살때 이민온 인택군의 가족으로 토론토대학에 재학중인 형과 오디오·비쥬얼 기술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취미는 스포츠, 사진, 독서이며, 학과목은 수학·화학등.

미시사가 부근 몰톤(Malton)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오순석씨의 차남 오인택(17)(Paul Oh)군이 평점 97.3으로 고교 수석졸업과 토론토대학 장학생이 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키스지역-일리노이주 디어필드 기차역에 붙은 「키스지역」 표지판. 이기차역은 출퇴근시간에 굳바이키스를 하는 부부들이 아무데서나 교통을 방해, 2년전 이지역을 설치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큰 효력이 없다고.

여름철 특별 세일
7월10일(토)~8월7일(토)까지 (1달간)
45% Off!
고급 Noritake 홈셀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40%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656-4315 Mrs. 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소 론〉 〈4〉

인류종말이냐, 핵군비 축소냐

캐나다한인연합회 이사장 강 신 봉

북미의 방공망

국가간에 전쟁을 한다는 것이 개인간에 싸움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힘센 주먹이 있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적의 거동을 보지 못하고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방공망이라고 함은 바로 적의 하늘을 지켜보는 눈과 공격할 수 있는 주먹과의 유기적인 조직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레이다망과 요격망의 결합을 의미한다.

2차대전 이후 미소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양진영은 이데올로기를 같이 하는 국가간에 군사적 결속을 굳혀왔다. 유럽에서는 공산진영의 WARSAW PACT에 대비하여 NATO군이 생겼고, 북미에서는 소련의 직접공격에 대비하여 미국과 캐나다가 NORAD(North America Aerospace Defense)의 방공망을 창설하였다.

1957년도 창설된 NORAD의 산하에는 DEW(Distance Early Warning) system과 Pinetree system의 요격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 Spring-Field에 있는 방공사령부와 직결되어 있다.

DEW System은 주로 장거리 탐지 레이다부대로서 알라스카에서부터 그린랜드에 이르기까지 31개의 레이다가 북극권에설치되어 있으며, 알라스카에 6, 캐나다에 21, 그린랜드에 4개소로 되어있다.

이 장거리 레이다들은 북극권을 완전히 카버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소련의 요격기, 또는 유도탄이 북미를 공격할 경우, 방공사령부와 Pinetree system에 자동경보가 울리게 되며, 그에 따라 곧 출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전략무기및 인공위성의 개발로 인해 이 NORAD의 필요성이 감축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1955년도에 3억5천만달러를 들여 건립한 이 레이다기구들은 일년 유지비(금년도)만도 8천6백만달러나 들고, 또 그에 따른 요격기 운영에 캐나다만도 연 1억8천만달러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당시의 전략적 가치와 오늘날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구개편이 요청되고, 낡은 장비의 운영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 이유로서 소련이 북극권을 통해 비행기 요격을 해올 가능성이 적으며, 둘째로는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로 인해 재래식 전술의 가치가 적어졌고, 세째로는 인공위성, AWAC(공중조기경보기)및 OTH(저공비행 감시)에 의한 공중감시가 경비및 방법으로 보아 더 절약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의 감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하늘높이 위성을 상주시켜 공중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인력의 특수동원이 필요없고, 대륙간탄도탄같이 고공으로 날으는 물체를 감시하기에 적격이다.

AWAC(Airforce Warning and Control Systems)는 필요시에 필요지역에 출동시키는 비행기 감시의 레이다이므로 경비가 적게 들고, 소위 Blank Area(기성레이다로 포착이 불가능한 지형)까지 카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TH(Over-the-Horizen Backscatter) Radar는 해안지대에 배치함으로 바다위를 정확히 감시하게 되어 있어서 저공비행 감시에 장점이 있다. OTH를 해안에 배치하는 것이 현존 기성 레이다보다 철저한 카버가 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장단점뿐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 배치된 NORAD의 요격기가 F101비행기인데 이는 너무 낡은 장비이므로 새시대의 방공망에 뒤졌다는 이론이 구구하다. 앞으로 CF-18 Hornet기로 대치될 것이겠지만 이 비행기 역시 전술무기이지 대륙간탄도탄에 대비하는 전략무기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NORAD System에 의한 방공사령부의 전술적 역할을 Tactical Air Command(전술공군사령부)에 편입시켰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북미의 방공은 미국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실로 캐나다는 영토에 비하여 군인이 너무 적은 셈이다. 캐나다군대는 육해공군으로 완전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사령관 산하에 필요에 따라 육해공군의 기능이 예속되어 있으며, 총병력이 8만명 정도이니 자체국토방어에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데 일부는 NATO군에 편입되어 있고, 일부는 NORAD에 편성되어 미국과 합동작전을 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약1만5천명 정도에 불과하다.

외세로부터의 방공망을 생각할 때 캐나다는 미국의 방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은 캐나다에 국방비 증가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소련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미국자체의 방공망보다도 캐나다의 방공망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합동작전을 벌여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핵무기의 전쟁이 발발하면 NORAD의 방공망도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다만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탐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전쟁시 Anti-Missile Missile을 조정하여 소련의 핵탄두를 격추시키는 방공망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미·소의 핵탄두가 캐나다 상공에서 폭발한다고 생각해 볼 때 캐나다에 있는 방공망의 존재가치는 캐나다 국민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계 속)

◆15년전 유행했던 미니·스카트가 다시 컴백했다. 새 미니·스타일은 상의가 풍성하고 라인이 심플한 것이 특징. 사진은 토론토 거리에 등장한 미니. (토론토·선지에서)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3〉

冷血 ⑦

그녀는 거짓말 하는데도 天才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어깨에 걸친채 허탈하게 걸어갔다. 누가 조금만 밀어도 그대로 넘어질 것만 같았다. 자꾸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다가 택시 정류장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이 늦은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택시 잡기도 힘들었다. 할수 없이 버스를 타고 겨우 집에 도착해서 보니 12시10분전이었다.

남편은 양복을 입은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다. 창백한 표정인 것으로보아 몹시 화가 나있는 것같았다. 안경넘어로 말없이 쏘아보기만한다. 문자는 맞은 편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후우하고 내쉬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아무 대꾸도 없다.

『그럴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괜스리 추스렸다. 머리 좋고 예민한 남편을속이려면 완벽하게 해내야한다. 입술을 혀로 핥았다.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목이아팠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이라 할수 있었다.

『오늘 동창계에 갔는데 글쎄… 늦은 점심을 먹고 식당을 막 나서려는 참에 차가 달려들지 않겠어요. 피아론데 글쎄 눈 깜짝할 사이에친구를 치었지 뭐예요. 김숙자라는친군데 더구나 임신 5개월 된 애예요. 글쎄 차 바퀴가 정강이위로 지나갔으니 어쩌겠어요. 운전수가 젊은 것이 생기기도 방정맞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뭐 할수있어야죠. 친구들이랑 함께 우르르 병원으로 달려갔죠. S대 부속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있어야죠. 다행히 목숨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난 그애가 꼭 죽는줄 알았어요.』

굳어있던 남편의 몸이 움직였다. 담배를 집어들더니 불을 붙인다.

朴 男 그림

『친구 두명은 거기서 밤을 새기로 했어요. 저보고도 함께 새자고 했는데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어요.』

남편의 눈매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안도의 숨을 가만히 내쉬었다.

『집에 전화는 줬다가 뭐해?』

『아이, 미안해요. 전화 걸 경황이 없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식사하셨어요?』

『먹고왔어.』

『당신도 늦게 들어오셨군요?』

『응, 늦었어.』

저고리를벗고 넥타이를 푼다.

『사고당한 애 남편 정말 그렇게울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럽게울던지 모두가 따라울었다고요.』

『못난사람이군. 여자들 앞에서 울기는…』

『어머머, 당신 그럼 나 차사고 당해도 울지 않을거예요?』

『울긴 왜울어.』

『내가 죽어도?』

웃으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써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아기는어떻게 됐어?』

『아기라니요?』

『임신했다며?』

그녀는 아차했다. 얼른 다시 머리를 추스르며 대답했다.

『아기도 이상없대요. 하지만 몇달은 고생해야된대요.』

『나가는건 좋은데 조심하고다녀. 그리고 그 계라는거 좀 안할수 없어?』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COSKA PICNIC」

사무실 의자가 딱딱하게만 느껴질때입니다. 하루가 무척이나 지루하고요. 집에 있어봐도 TV 만 보게되고 뭐 신통한 것이 없읍니다.

나오세요.
천태만상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나오세요.
COSKA PICNIC에!

캐나다 한인 컴퓨터협회에서는 올해도 아래와 같이 함께로 나가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자동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요.

때 : 1982년 7월24일 오전11시
장소 : G. ROSS LORD PARK
Dufferin을 타고 North로 오시다가 Finch를 지나서 첫번째 Signal에서 오른쪽으로 Turn하시면 Parking장이 있음.

연락처 : 968-7122
주관 : 캐나다 한인 컴퓨터협회 (COSKA)

中東 同門

정기야유회및 낚시대회

금년도 중동 동문회에서는 정기 야유회및 낚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하오니, 동문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8일(일) 아침 10시
◉장 소 : Glen Haffy Conservation Park
(HWY 7과 Air Port Rd. 만나는 지점에서 10마일 북쪽에 위치함)
◉준비물 : 각자 점심및 낚시도구
(상품및 드링크는 동문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홍사겸 742-5672
이용석 363-3687
신경식 439-3690

중동동문회 회장 홍 사 겸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 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로 무사히 발표회를 마침을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실시코자 합니다.

◉강습내용 : 한국무용 및 JASS BALLET

◉시작일시 : 7월9일부터
◉요 일 : 월·수·금
◉시 간 : 오후2시~4시까지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전 화 : 922-2241, 924-3905

청년 연합수양회

일 시 : 1982년 7월16일(금) 저녁 8시
17일(토), 18일(일) 새벽 5시
장 소 : 혁신선교협회 기도원
강 사 : 박경남 목사(토론토 충현교회 담임)
연락처 : ☎ 226-2583, 223-1914
☎ 266-2709, 241-5419
참고사항 : 각 교회 청년회장은 참가인원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휴대품 : 침구와 세면도구
식사는 제공함.
교통편 : 교회별 출발과 개인출발

※300 QUEEN'S DR.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앞에서는 7월16일(금) 저녁 7시에 출발.
기타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람.

주관 : 토론토 충현교회 청년회
토론토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청년회

한국일보
우리의理解와團結을위한新聞

「資産도피防止」特措法 추진

財務部 방조한 內外國人 嚴罰규정 두기로

少額예금利子등 分離課稅

株式 純益만 대상…證券거래稅 폐지

정부는 7·3조치의 보완조치로 국내재산이 외화도피형식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해외재산도피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예금·채권이자및 주식배당을 모두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면 국민에게 너무많은 불편을 주기때문에 소액예금과 공제회, 친목회, 동창회기금, 계등 기금의 이자및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주식양도차익과세는 1년간 이익에서 손실을 공제한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대신 증권去來稅는 폐지키로 했다.

共濟·親睦會기금 利子등도 綜合課稅 않기로

假名예금、國公債매입 경우는 資金출처 不問

이와아울러 假名예금이 國公債를 매입하는경우는 實名化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불문에붙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예금·주식의실명화와 종합소득세제를 전면실시하려면 세무공무원의 자질이향상되어야하고 컴퓨터의 보급이완벽해야 효과를 방지할수 있는것으로보고 컴퓨터의 보급과실용화를 점검하여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명제와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실시를 연기하는방안도 검토하고있다.

6일 관계당국에의하면 예금주식의 실명화과정에서가장 우려되는것은 재산의해외도피라고 분석하고 외화도피를 방지하기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거쳐 해외재산도피방지를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특별조치법은 외화도피의경우 국내도피자뿐만아니라 이를도와준사람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한처벌규정을 두기로했다.

정부는 또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할 경우 고액소득자가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 稅後소득은오히려 적어질수 있으므로 稅後실질금리보전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재무부는 또 다수국민에게 불편이없는 방향으로 종합소득세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소액예금과 소액투자자에 대한 다각적인 별도보호대책을 서두르고있다. 이에따라 소액예금자나 공제회, 친목회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재무부는 특히 자본시장은 계속육성한다는 취지에서 證市에 충격을 주지않는다는 방침아래 소액주주에대한 분리과세, 증권거래세(0.2%)의 철폐, 양도차익과세는 1년간 손익을 통산해서 정산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7·3조치에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종합적인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할계획이다.

金融기관·國稅廳 컴퓨터連結 논의

재무부는 6일하오 재무부회의실에서 稅政협의회를 소집, '7·3금융거래실명화조치'에따른 준비작업으로 금융기관컴퓨터와 국세청컴퓨터를 연결활용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稅政협의회는 이날 국세청과 은행, 제2금융권, 증권회사, 보험회사를포함한 모든금융기관의 거래를 전산화함과 아울러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키위해 컴퓨터설치준비위원회(위원장 金興起재무차관)를관계기관의대표로 구성키로했다.

配當所得分의 教育稅 폐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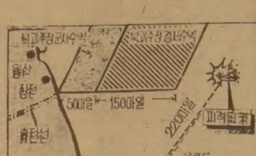
정부는 7·3조치에 의거, 이자및배당소득에 대한 현행분리과세가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내년7월이후부터 이자및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부가를 철폐할것을 검토하고있다.

재무부당국자는 6일 현행교육세법이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의 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이를 그대로둘경우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7월1일이후에는 이부분에대한 교육세부가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된다고말하고 현재배당및이자소득에 물리고있는 교육세를 사치성 물품소비에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北傀、우리漁船 砲擊

울릉도東北方 公海上서 나포企圖

成進5호, 必死的탈출…귀항



鬱陵島 동북방 2백20마일 거리의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1척이 북괴해군 초계정의 총격을 받고 나포당할 위기를 모면했다.

6일 수산청 발표에 의하면 총격을받은 어선은 동해시어협소속 오징어잡이 제5成進號(1백45톤·선장金東泰)로 지난5일 하오5시30분께 72척의 어선단과함께 공해상에서 조업중이었는데 갑자기 북괴 초계정1척(511호·2백톤급)이 총격을 가하면서 월북을 종용했다는것.

제5成進號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우리해군의 보호아래 철수중이며 7일상오9시께浦項에도착할예정이다.

이배에는 선장金씨등 37명의 선원이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수산청은 제5成進號가 귀항하는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하고 북괴가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총격을 가한것은 용납할수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이번사건에 대해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괴측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收復地 소유權회복

民正黨 검토

民正黨은 不動産 소유移轉登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前方收復지구의 未登記土地에대한 소유권회복방안을 검토중이다.

鄭元民의원은 6일 하오『收復지구 19억여평중 이미 소유권이 회복된 土地는 12억평이며 소유권 未등기토지가 4억4천만평, 地籍미복구토지가 2억평에달한다』고 밝히고『未登記 토지중自他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에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방안을 검토중에있다』고말했다.

한국 試錐예정 印尼 西마두라海域에

9億배럴規模 油田발견

背斜구조…石油부존은 未詳

우리나라가 오는 8월중순부터 試錐작업에 들어갈예정인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에서 매장량 9억배럴규모에 달하는 背斜構造를 가진 油田이 발견된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자부와 油田개발전담회사인 코데코에너지(株)에 따르면 코데코에너지는 그동안 西마두라해역 4천18㎞에대한 彈性波探査자료를 전산처리, 분석한결과 폴랭에어리어 인접지역에서 매장량이 9억배럴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되는 背斜構造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코데코측은 예상외로 거대한 배사구조를 가진 지층을 발견한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이 배사구조에 석유가 들어있는지 천연가스 또는 쓸모없는 메탄가스류가 들어있는지를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코데코는 이같은 자료분석에따라 미국 CT서비스社가 뚫은적이 있는 폴랭지역등4개 시추지점을 이미 선정하고 오는 8월중순께 시추작업에 들어가 연말까지 2개孔내지 3개孔을 뚫고 나머지는 내년초에 계속해서 뚫을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코데코측은 당초 지난5월 시추예정을 7월로 늦추었다가 다시 8월로 연기했었다.

그런데 西마두라해역은 油徵발견율이 43%로 그동안 뚫은 구멍중 43%에해당하는 구멍에서 油徵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油徵이 발견됐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 성급한 기대를거는것은 무리다.

CT서비스社는 폴랭지역에서 日産5천톤을 생산할수있는 배사구조를 발견했으나 경제성이없어 구멍을 폐쇄시킨적이 있다.

관계당국은 최소한 日産1만5천배럴을 생산할수 있어야경제성이있다고보고있다.

코데코측은 그동안 탐사비용과 앞으로 시추비용으로7천만달러가 들것으로 보고동자부와 이의조달방안을 협의하고있다.

全대통령、가뭄地域 시찰

"年中 저수 恒久策을

糧特赤字줄여 農村개발 집중投資"

【盈德·星州=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6일『연중 내리는 비를 貯水해서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는것이 과학영농』이라고 말하고『저수지, 小溜池등을 개발하여 旱害를 人力으로 극복할수 있도록하는 여러방안을 강구하라』고 수행한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慶北旱害지역을 시찰하는 도중 英陽郡廳과 星州郡廳에 들러 각각 旱害대책을 포함한 郡政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앞으로 糧穀관리赤字를 대폭줄여 농촌의 도로포장、上下水道、축산、원예등에 자금을투자, 농촌을 집중개발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이렇게될경우 농촌은 도시보다 훨씬쾌적한 생활환경이 이루어져 도시인구의 농촌流入을 유도할수있을것』이라고 강조,『이같은 농촌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올해의경험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營農이 시작되는 봄철에 移秧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하는방법을 각지역의 특수성에 알맞게 강구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30분 慶北迎日郡 義昌邑龍泉洞 曲江川바닥에 임시 마련된 한해대책현장과 盈德郡柄谷面 松川洞 한해대책현장에 들러 군수들로부터 각각 가뭄대책을 보고받은 다음 盈德邑대중음식점에서 이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오찬을나누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영·호남뿐만이 아니라、비교적 수리시설이 잘되어있다고 하는 경기도 高陽郡 元堂邑 일대의 논도 갈라지는 실정. 張春在씨(47)등 이곳주민들은 15년만에 닥치는 가뭄이라면서 지하20m까지 관정작업을 해가며 물을 끌어올리느라 밤을지새우고 있다. 【경기도 高陽郡 元堂邑 舟橋1리에서 崔東完기자】 ★관련기사 3면

韓·日經協 실무회의

8월초 까지 서울서

李外務、日大藏相등 만나

【東京=宋孝彬특파원】韓日외상회담을 끝마친 李範錫외무장관은 6일 상오에 걸쳐 기시(岸)、다나까(田中)、미끼(三木)등 前수상과 아베(阿倍)통산상、고오모또(河本)경제기획청장관、와따나베(渡邊)대장상을 각각예방하고 對韓경제협력 문제가 早速히타결 되도록 협력해줄것으로 요청했다.

다나까前수상은 李장관을 맞아『불가결한 韓日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위해 經協문제는 조속히 타결되는것이좋다』면서 적극협력할것을 약속했다.

또와따나베 大藏相은『일본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稅收결함을 들어 지난4월 야나기야(柳谷)심의관이 제시한 일본측案이 최대의성의표시』라고 지적하고『조속한 시일내에 韓日양국이 합의하여 타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孔魯明외무부차관보와 기우찌(木內)日本외무성亞洲국장은 외상회담에서 韓日간의 經協문제를 조속히 타결한다는 방침에따라 제3차 實務者회의를 7월~8월초순에 서울에서열고 사꾸라우찌 외상의 訪韓은 그후 실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에서 열릴 제3차실무자회의에서는 한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商品차관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응하여 수출입은행융자와 정부開發基金 일부에서 공여할수 있도록하는 일본측 代案을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2종醫保 보조요구

국민당、保社委대책

국민당은 6일상오 李東鎭총무주재로 총무단및 黨소속 국회보사위원 연석간담회를 갖고 7일상오에 소집되는 保社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지역에 대한 2種의료보험실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같이하고 醫藥分業에따른 문제점을 줄이기위해서는 2종의료보험시지역에대한 國庫보조가 뒤따라야한다고지적、7일의 保社委에서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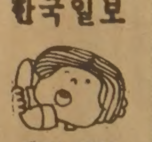
"3黨代表 조속회담

民韓요구 經濟조치 청취 임시國會도"

民韓黨 당무회의는 6일 청와대회담의 後續조치문제등을 다루기위해 3黨대표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촉구키로하는한편 7월중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民韓黨은 이날 당무회의에서▲청와대회담의 후속조치및 ▲정부의 새로운 각종경제조치 ▲金相浹신임 총리의 認准과 시정방침을 듣고▲그밖의 여러 당면문제들을 밝히기위해 임시국회소집이 필요하다고 결론、7월중 임시국회소집을강력히요구키로했다고金珍培대변인이 밝혔다.

金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간통사건으로 구속중인 韓英洙의원사건에 대해『담당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열람을 끝내면、총재단과 협의해 당의 방침을 결정하고 韓의원의 석방을위해 최선을 다하기로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社会漫評

지글 지글…

地平線

사람이 황금을 캐기 시작한 것은 6천년전이었다고한다。그동안 캐낸 금은 약10만톤。26억6천6백66만냥이나된다。이것을 한군데 모아 덩어리로 만들면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7m37㎝의 덩치밖에 되지않는다고한다。금 1톤을 두들겨서 실오라기처럼 만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 올만큼 금은 연한 쇠붙이다。이것은 영국의 브라이언·케텔 교수가 엮어낸 숫자다。

▼재작년1월 1온스에 8백50달러까지 치솟았던 금값이 금리가 오르고 불경기가 확대되면서 곤두박질을 쳤던것은 잘알려진 일이다。최근의 국제시장 금값을 보자면 3백달러선까지 굴러떨어진 기세다。지난3일 현재 런던시장에서는 1온스에 3백13달러였다。우리돈으로 치자면 1돈쭝에 3만7백20원의 시세다。물론 이것은 국제적인 도매시세라고 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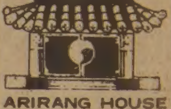
▼자유세계 금생산량의 약70%를 차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생산량이 작년에는 22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남아프리카의 노다지광이 최고의 경기를 누리던 70년에 다댄다면 65%로 뚝떨어진 셈이다。게다가 값도 신통치않아 남아프리카는 작년에 48억달러의 국제수지적자를 냈다。금노다지의 꿈은 불경기와 함께 깡그리 사라진 것이다。

▼국제경기는 하반기부터 풀릴것이라고 하지만 귀금속 전문가들은 금값이 2년전의「황금기」로 회복될 가망은 없다고 보고있다。뉴욕의 커미트·크랜츠라는 전문가는「인플레율이 계속 떨어지는 한 금붐은 다시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덩달아서 기름값이 신통치않아 중동의 기름부자들이 금고속에 쟁여뒀던 금덩어리를 풀어 놓는 바람에 금값은 피를 보고있다。

▼몇년전 전세계적으로 실물투기바람이 휩쓸었을때 장롱 깊숙이 파묻혀 있었던 금패물들이 금방에 쏟아져나와 금덩어리로 녹아버렸었다。80년 한해동안 녹은 패물만 적어도 4백60톤은 될것이라고보는 전문가도 있다。이것은 이해 비공산권의 금광에서 생산된것과 맞먹는 양이다。너도 나도 패물을 들고 나와 로키트처럼 치솟는 금덩어리로 바꿨던 것이다。

▼세계의 금값은 지금 바닥시세일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그러나 일부에서는 1온스에 2백50달러선까지 떨어질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1돈에 2만4천5백원넘짓이다。국내시세는 1돈에 4만5천원(5일현재)이니까 런던의 3만7백20원에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시세다。게다가 국제시세가 2만4천원선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우리의 터무니없는 금값을 알만하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특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 7961(B)
690-5217(R)

Family Products Distribu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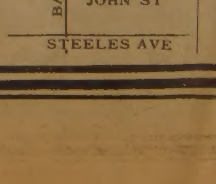
Can Save you Time and Money Pick—Up or Fast Delivery

ALL 7 SIZES

$ 43.51	$ 44.55	$ 44.28	$ 34.60	$ 44.88	$ 53.88	$ 34.60
NEWBORN	DAYTIME	DAYTIME 24'S	DAYTIME 60'S	OVER NIGHT	TODDLER 24'S	TODDLER 48'S

품목 : Paper Towels, Facial Tissues, Bathroom Tissues, Detergent, Garbage Bags, Diapers etc ……

FREE DELIVERY ($60이상 주문인 경우)



87 GREENLANE UNIT 10 THORNHILL 889—9757 · 366—7093

南·北韓、日·中共간의 스포츠交流—

中共、큰關心표시

萬里부수상、日 讀賣신문사장과 만나

【東京6日=聯合】中共부수상 萬里는 南北韓과 日·中共간의 스포츠교류에 큰관심을표시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노선을 맹렬히 비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北京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의하면 萬里부수상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고바야시·요소지(小林與三次) 요미우리사장과 회담하는 가운데 고바야시사장의南北대화촉진을 위해 일본에서 南北韓및 日·中共선수가 참가하는 청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서로 노력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萬里는 고바야시사장이 구체적인 南北韓 대화촉진방안을 물은데대해 『이점과 관련하여 미국과도 얘기한적이있지만 東北아시아 평화문제는 어디까지나 2개의 패권주의와 관계가 있다』고전했다.

蘇、SS20基地 2개 더建設

우크라이나地域에

諜報위성촬영…

【본5日AP·AFP=聯合】소련은 신형중거리다탄두미사일인 SS20미사일을 더이상 실전배치하지않겠다는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 미사일발사기지 2개소를 건설하고있다고 로타르·릴서독정부대변인이 5일 밝혔다.

그는 美첩보위성들이 찍은 항공사진을 인용, 소련이 3개탄두가 장착돼있는 SS20미사일 3백15基를 이미배치한데이어 우크라이나 지역에 각각 9개의 발사대를 갖춘 2개소의 발사기지를 건설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배치된 3백15基의 SS20미사일중 70%인 2백25基는 西歐를 겨냥하고 있으며 나머지 90基는 일본·중공을 비롯한 극동지역을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지역의 미사일기지 추가건설작업으로 西歐를 겨냥하는 SS20미사일은 2백25基에서 2백43기로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릴대변인은 또 서방측최신정보에 의하면 소련이 올해 1개의탄두를 장착한 구형미사일 SS4 30~40기를철거해 SS4미사일은 2백60基, SS5미사일은 16基가 되었다고 전했다.

서독정부소식통들은 소련이 지난59년과 61년부터 각각 실전배치하기시작한 SS4, SS5미사일들을 대체하기위해 매년 SS20미사일 60~70基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은 소련의 이같은 행동에 별로 놀라지않고있다고 전했다.

영구 宇宙정거장

蘇 發射계획推進

【뉴욕5日鄭=聯合】소련은최고 1백명의 우주인을 수용할수있는 영구적인 우주정거장을 발사할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뉴욕의 한방송이 5일 美정보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RKO방송은 소련의 최초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1호 발사 25주년을 맞는 오는10월4일을 기해 소련이 영구우주정거장의 부품들을 발사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정보소식통들은 소련이 영구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할경우 인간이 외계에서 살주할수있는 새로운 한 시대를 열게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우주정거장은 현재 개발중인것으로 알려진 탄도탄요격레이저무기의 기지로 이용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蘇「스타트」(戰略무기減縮회담)는 스타트했지만

뉴스診斷 外信部 崔相鎬 기자

「反核」여론에밀린 對坐 同床異夢의「숫자놀이」

既存감축(美측)과 현상凍結(蘇측)평행선

樂觀論者들도 "빨라야 85년타결"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3분가량의 폭약을 안고 살아간다.

지금 지구상에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세계최초의 원자폭탄보다 1백만배의파괴력을 지닌 核폭탄 약 5만개가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지구를 85번이상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는 量에 달한다.

유엔군축사무소는 세계각국이 군비에 쏟아넣는 돈이 매년 6천억달러, 매 분마다 1백만달러라고 발표했다. 다음 세기가 오기전 군비에 드는 돈은 매년 9천억달러가 될 것이며 인류는 이엄청난 부담을 감당치 못해 자멸해버릴지 모른다는 경고를 내리고 있다.

유럽과 세계 각국의 反核여론에 몰린 미·소는 유엔에서 軍縮특별총회가 열리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戰略武器減縮協商(START)에 들어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단순한핵무기팽창제한에서 한걸음 더 내디뎌 既存核力의 대폭감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미·소가 각각 보유한 1천 7백기와 2천3백50기씩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똑같이 8백50기로대폭줄여 숫자를 맞추고, 7천5백발씩의 양측 핵탄두는 그 3분의 1을 감축, 5천발로 축소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5천발의 핵탄두중 지상발사미사일에 적재할수있는 숫자는 2천5백발로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레이건의 핵력감축제안에 소련은 현상凍結을 들고나와 응수, 양측은 회담테이블에 앉자 마자 좀처럼 좁혀질것같지않은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소련은 보유핵탄의 70%를 거대하고 명중도높은 지상발사미사일로 운반한다. 이에비해 미국은 보유핵탄의 겨우20%를 지상발사미사일운반에 의존하고 있을뿐이다.

소련의 반대는 애당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레이건의 제안이 소련핵력의 일방적제한을노리는 것으로 소련은 받아들이고 있다. 4천6백개소의 지하발사대를 이동하면서 위치를 숨기는 2백기의 MX미사일과 새처럼 저고도를 날아 레이다를 피하는 크루즈미사일, 가공할 폭탄을 적재하고 소련본토에 날아갈수있는 B1폭격기를 현상대상에 넣지않으려는데서 소련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있다.

지상의 고정 사일로에 배치된 핵미사일이 적의 선제공격에 취약한 점을 감안, 미국은 잠수함과 공중에 더 많은 핵미사일을배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력을확보해놓고 있다.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은 미사일을 발사하기전에는 위치가 노출되지않는 위험천만한 이동식 수중 미사일 기지다.

미·소는 인공위성을 이용, 핵잠수함의 소재파악에 나서고있으나 현재의 탐지 深度가 잠수함길이의 반정도인 50~70m에 불과, 사실상 완벽한 탐지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적재한 트라이던트 수중발사미사일은 사정거리가 8천km다. 태평양과 인도양에 잠수해 있으면서도 소련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1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에는 8발이상의 핵탄이 실리므로 모두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장비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2백발가량의 핵탄두를 갖고있다. 1개의 핵탄두는 1백킬로톤 즉 히로시마원폭의 5배의 위력을 갖고 있어 그 공격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장거리폭격기의 숫자에서도 소련은 미국의 4백대에 비해 3백50대로 다소 뒤지고 있다.

미국이 소련의 월등한 지상핵력에 신경을곤두세우는데반해 소련은 미국의 압도적인 잠수함、공중발사핵력을 문제삼는다. 정작 선제공격의 잠재력은 미국의 잠수함、공중발사핵미사일이 더지니고 있다고 소련은 대들고있다.

양측 모두 이미 확보한 유리한 잇점을 빼앗기지 않으려한다. 소련은 따라서 미·소의 핵력이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핵력의 감축이 아닌 현상凍結을 들고 나왔다.

이번 제네바 START회담은 빨라야 85년쯤 타결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낙관론자들의 견해다. 비관론자들은 훨씬 더 시간이 지나야 타결이 날 것으로 본다.

미·소 양국의 전략핵무기 제한 회담은 1969년 SALT I 의 협상에서 부터 시작됐다. 1972년에 조인된 SALT I 은 ▲전략핵미사일의 숫자제한▲폭격기 제한▲요격미사일 제한을 골자로 했다. 그후 6년 6개월에 걸친 후속 회담끝에 1979년 SALT Ⅱ가 미·소 양국간에 조인됐다. SALT I은 77년으로 失效가 됐으나 SALT Ⅱ에 대해선 미국 상원의 비준이없어 이것도 死文化된 형편이었다.

이번 열린 START는 3년동안에 걸친 협상단절을 깬 장거리핵미사일 회담이다.

SALT Ⅱ는 양측이 반도 미사일、장거리폭격기、탄도미사일의 핵탄두수를 제한키로 합의했으나 소련지상미사일을 감축하지 못한 것이 큰 결함으로 지적되어 上院은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소양국의 행정부는 SALT Ⅱ의 협정내용을 지켜오고 있으며 85년까지 효력을 지속하게된다.

SALT I、SALT Ⅱ가양측의미사일수만을 제한했을뿐 미사일의 파괴력、명중도、취약점등은 논의하고있는데비해 이번 제네바에서 열린 START는이런복잡한 문제가 얽힌「숫자놀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것 같다.

제네바 START회담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에서 핵미사일과 핵탄두、장거리폭격기의 숫자감축에 합의하면 2단계에서는 탄도탄의 발사중량、혹은 발사핵탄의 파괴력과같은 복잡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는 것이다.

소련은 미국의 신형무기체계인 MX、크루즈、트라이던트、B1폭격기의 제한을 요구해 올것이 틀림없다.

레이건은 그러나 이들 무기의 배치는 결코 포기할수 없으며 숫자의 제한은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이들 무기가 핵선제공격능력을 부여케 된다고 우려하는 소련의 입장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START회담의 의제가 과거 SALT회담보다 복잡한데서 회담의 조속한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움을 쉽게 알수 있다. 그보다 회담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해주는 것이 협상에 임한 미·소의 眞意다.

레이건행정부는 출범 당시『미국의 핵전력을 먼저 증강한후 소련의 팽창행동이 자제된 경우에만 군축회담에 임하겠음』을 분명히 해왔으나 유럽맹방과 국내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START회담에 임한 점이다. 회담장에 앉게됨으로써 일단 바람은 막을수가 있다.

소련으로서도 제네바회담을 서구의 反核여론에 편승、평화의선전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START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 에드워드·L·로우니㊧와 소련측대표 빅토르·P·카르포프가 제네바에 도착, 악수를 나누고있다.

◇북극곰의 미사일 이빨과 엉클샘의 核파이프。(미국과 소련의 시사만화가들이 서로 상대편 군비확장을 비난하고있다)

◇이탱크 西베이루트空港 포격 이스라엘軍의 메르카바탱크들이 5일 베이루트국제공항주변에서 PLO게릴라들로부터 對戰車砲공격을 받은후 西베이루트와 地中海가 내려다보이는 구릉에서 베이루트국제공항 (왼쪽탱크의 아래쪽)에 포격을 가하고있다. 【베이루트5日AP=聯合】

이、5번째 休戰

PLO 早速한 撤收겨냥

【베이루트·예루살렘5日AP·UPI=聯合】이스라엘은 5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레바논철수를 겨냥, 西베이루트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력을 가중시켰으나 이날밤11시(한국시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후 5번째 휴전에 들어갔다.

레바논국영방송은 레바논사태해결을 위해 중재노력을 벌이고있는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가 레바논정부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이날하오4시부터 이스라엘軍이 전투를 중지할것이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8일간 계속된 4차휴전을 깨고 2일동안 계속된 이스라엘軍과 PLO게릴라간의 전투가 일단 멎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5日共同=聯合】소련은 5일 레바논사태의 해결을 위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호소를 거부했다고 아랍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파루크·카두미 PLO정치국장(외상격)과 모하메드·부세타 모로코외상및 알아메드·알사바 쿠웨이트 외상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미코外相은 이회담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현재의 전투와 이스라엘軍의 레바논철수를 위해 소련의 국제적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외교적 차원을 넘어 현재의 중동정책을 변경할 의사는 없음을 통보했다고 이소식통들은 전했다.

★레바논侵攻 이軍 새裝備 榴散彈방지 안경도

레바논침공 이스라엘軍은 榴散彈방지를위한 특수안경을 장비하고있으며 이스라엘탱크는 날개달린 포탄을 장착하고있다고 텔아비브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미하엘·벨킨교수는 이날마리브紙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투명플래스틱을 렌즈로 사용하는 조종사용 안경모양의 유산탄방지안경을 개발했다면서 이안경은 이스라엘예비군의 30%가 정상적인 교정용안경을 끼고있는관계로 그위에 덮어쓸수있도록 고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안경을 레바논침공에 참가한 이스라엘軍이 광범하게 사용함으로써 수백명의 병사들이 완전, 또는 부분적실명을 모면했다고 주장.

한편 벤자민·카르론 이스라엘군수산업국장은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헤츠(화살)彈이 현대전에서 사용되는거의 모든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포탄이 안전날개를 달고있어 무서운속도로 발사된다고. 【텔아비브=AFP】

◇軍縮회담 일지

▲1963년 7월25일 : 우주 지상 수중 핵무기실험금지조약체결
▲1964년 1월 : 美, 전략핵무기 회담과 포괄적 비무장병력축소회담분리제의
▲1968년 7월 1일 : 존슨 대통령미·소군축회담개최 합의발표
▲▲1969년 1월20일 : 닉슨취임, 소련 핵무기제한회담제의
▲1972년 1월26일 : 닉슨—브레즈네프 SALT I조인, 요격미사일기지는 2개소, 요격 미사일은1백기로제한。ICBM과 SLBM (잠수함 발사탄도탄) 의 실험배치 5년간동결
▲1972년11월 : SALT Ⅱ회담개시
▲1974년 7월 3일 : 닉슨—브레즈네프 지하핵실험제한에관한 조약·의정서조인, 요격미사일망에 관한 의정서 조인
▲1974년10월24일 : 포드—브레즈네프블라디보스토크회담SALT Ⅱ의지침에합의, 핵운반수단 숫자 2천4백으로 제한
▲1977년 1월20일 : 카터, 취임연설에서 새 군축회담제안
▲1977년 3월28일 : 밴스국무장관, 모스크바서 회담시작
▲1977년 5월18일 : 밴스—그로미코 제네바회담, 9월에는 워싱턴에서 회담
▲1977년 9월 : 미·소 SALT I의 효력상실에도불구 협정내용 준수키로 합의
▲1979년 5월 9일 : SALT Ⅱ조건합의。핵미사일·잠수함발사미사일·폭격기등의 보유상한 2천4백기로 제한, 궁극적으로 이를 2천2백50기로 감소한다는데합의, 85년까지 효력
▲1979년 6월18일 : 카터—브레즈네프 SALT Ⅱ조인, 美상원인준거부
▲1981년11월18일 : 레이건 「제로옵션」제안
▲1981년11월30일 : 미·소 제네바에서 유럽중거리핵미사일감축회담
▲1982년 5월 9일 : 레이건, 전략핵감축 2단계제의
▲1982년 5월16일 : 브레즈네프, 유럽중거리핵동결제의
▲1982년 6월29일 : 미·소 제네바에서 START회담시작

달아오른 軍縮무드… 유엔서도 同時에 特總

UN사무총장、非武裝지역설정 호소

"地球"를 살리자

하비에르·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지난1일 계속중인 제2차 유엔軍縮특별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군비경쟁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자」는 제목으로 군비경쟁에 의한 환경오염과 군비확장 현상을 감소하기위한 행동방안으로 환경보호상 중요지역을 비무장화하고 우주를 군사적에 사용하지못하도록 금지하자는 등 10개항목을 제의했다.

케야르총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이 무익한 군비경쟁으로 소모되고있는 실태에 대해 ①세계 석유소비량의 5~6%、구리 11%、납 8%등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며 ②유럽 전체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약 6천만명이 군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③세계 과학자와 기술자의 약20%가 군사연구에 투입돼있고 ④각종연구개발비의 25%에 해당하는 3백50억달러가 1980년에 군사연구개발비로 사용됐고 ⑤세계 군사비지출은 1900년이래 30배이상 증가、80년에는 5천억달러에 이르렀고、앞으로 연평균 3.2%씩 늘어나 20세기말에는 1조달러를 넘어설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야르총장은 또전쟁의 피해는 인간만이 아니라 농업환경을 파괴하고 사막의 생물체계를 변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기상을 변경시키는 무기나 중성자탄、생물·화학무기등을 저장·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도 무시할수 없는 단계에와 있다고 고발했다.

케야르총장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행동방안으로 ①세계 과학연구기관의 상호협력、조사활동 ②환경보호상 중요지역의 비무장화 ③우주의 군사목적 사용금지 ④핵무기 전면 금지를 위한 협상노력 ⑤비핵지대의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미·소 전략핵무기 전력비교

구 분	미 국	소 련	레이건 감축제안
ICBM+SLBM(잠수함탄도탄)+폭격기수	2,100	2,700	
ICBM+SLBM총수	1,700	2,350	850
ICBM 총수	1,050	1,400	
핵탄두+핵폭탄 총계	9,000	8,500	
미사일핵탄두 총계	7,500	7,500	5,000
폭 격 기	400	350	
SLBM탄두	4,656	1,334	

한국일보詩壇

「아메리카 소식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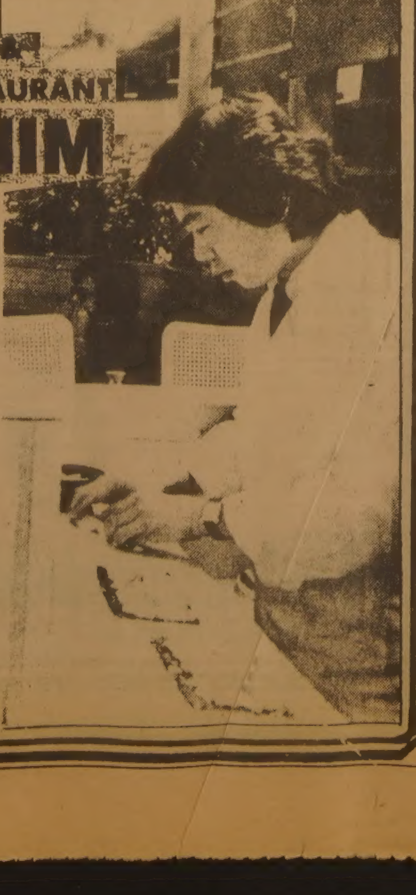
손호연 【在美 詩人】

뉴욕출발、시라큐스로 가는 캐나다 오타와行버스。
누구의 손톱거쳐 地上에 퍼졌는지、車창으로 보이는 끝없는 민들레 꽃술들。
車만 달려가고 걸어가는이 하나 보이지않아、아아—무정한 나라。
놀랍도 신비로운눈초리로도、아무도 나를 보지않는、異民族에 익숙한 그들 사이에서、
櫟木의 저편、湖水에 해는 떨어지고、
오늘도 벼랑위에 세워진 내의지의 斷崖、
그리고 強함의 시련。
廣大한 땅덩어리도 풍부한 물질도 원하지않아、오직 나 願하는것은 平和뿐。
펜실베이니아하이웨이、기도를 드리면서

한국·일본음식 전문점

호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HO SHIM



제일 큰 고층빌딩내 「호심」에서 한번 시식하십시오. 맛있는 한식과 일식을 토론토에서…

놀랄만한
저렴한 음식 가격!

*예 :	불고기	$4.95
	튀김만두	3.95
	비빔밥	4.50
	스 시	3.75~9.95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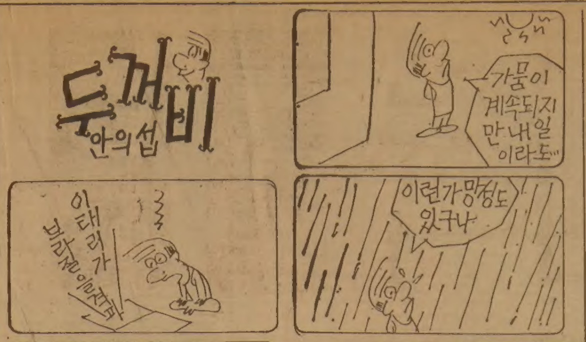
* 새로 쓰시바 신설
* FAST TAKE OUT SERVICE
* 단체도시락 주문에 응합니다.
* 단체연회 특별봉사
* 주문 환영합니다.

— 저녁6시 이후에는 도로변 주차 가능.
— 저렴한 파킹장 : 평일 오후6시이후 Flat $1.50,
토요일 Flat $1.50

주류판매 개시
NOW FULLY 술LICENCED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토요일은 예약시에 엽니다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P. O. BOX 329 (100 King st. at Bay) ☎ : 368—0686



女性界 소식

高雄市 樹德女商高 張佩玉교장등 來韓

자유중국 高雄市의 樹德女子高級家事商業職業學校의 교장인 張佩玉여사(60·사진)가 자매학교인 聖信여고의 초청으로 교사10명과 학생3명을 이끌고 지난1일 방한했다。

張교장은 주·야간 9천3백명의 학생들이 있는 수덕여고를 64년에 설립하여 36년동안 미용·복장·상업·회계·무역계통의 유능한 직업인을 길러냈고、부속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는 1남1녀의 어머니교육자이다。

46년 북경에서 대만으로 이주했으므로 통일에의 염원도 강한 사람。賢母良妻이며 직업에 충실한 여성을 가장 멋진 여성이라고 말하는 張교장은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예지원、설악산、경주보문단지、현대조선소를 둘러본뒤 7일 출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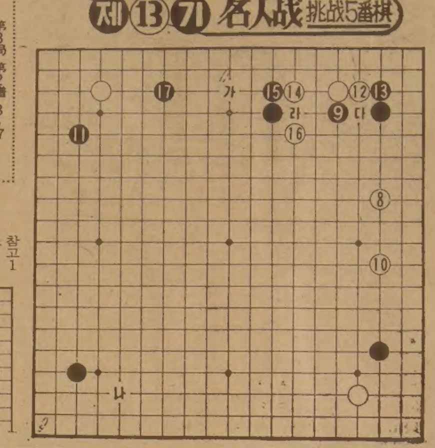
育兒教育세미나

유아교육의 하기 세미나가 한국유아교육연구회 주최로 12일~16일 서울중앙교회 본관(梨大부속병원뒤)에서 열린다。교육심리、동화구연、율동、아동미술등을 전문가가 강의한다。접수는 10일마감。☎73-7342。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 第2譜 8~17 (각5시간·덤5집반)

黑(名人) 曹薰鉉〈2勝〉
白(挑戰者) 徐奉洙〈2敗〉



意表를 찌르며…

白이 8에서 10으로 벌린이상 黑으로서는 11로 12자리에 호구막음하여 우상귀를 확보하는 수도 생각된다。그러나 이경우는 白이 좌상귀를 11로 굳힌다음 白「가」로 육박경 전개하는수와 좌하귀를 白「나」로 걸치는수를 맞보게되어 黑이 불만인때문에 名人은 黑11로 좌상귀에 선행한것이다。

白12는 意表를 찌른 기세다。그리고 黑13을 「다」에 이으면 白13으로 밀고들어가서 귀의실리를 차지하자는것。따라서 黑13은 당연한데 노타임으로 두어치운 白14、16은 역시 고수의 수법이며 대접이었다。다만 국후에 『白16은 「다」로 째어 참고1도처럼 黑1、3이면 白2、4로처리하는것도 일책이었다。수순중 黑3을 참고2도의 黑1이면 白2이하6 다음 어떻게 변하여도 싸울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도전자는 우선 白16에 뛰어놓고 다음에 黑이 「라」의 곳을 째면 그때가서 白「다」로 나와도 늦지않다고 본모양이다。

이때 黑17역시 노타임으로 두어졌다。【一凡】

고사리 손으로 文化財 지킨다

——槐山 명덕國校에 「향토 박물관」

「고사리손으로 향토문화재를 지킨다」7일 상오 11시 「槐山향토문화재박물관」 개관식을 갖는 槐山邑 명덕국민학교학생들. 박물관이래야 교실 두칸, 소장 향토문화재도 1백13종 3백80여점에 불과하지만 어린이들의 긍지는 대단하다。도굴꾼이 득실거리고、문화재불법수집이 대단한 취미가 돼있는가 하면 「조상의얼」이 담긴 문화재를 헐값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 「어른의 세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고사리들의 도전이기도하다。

教室두칸에 「어린矜持」활짝
고려청자등 3백80點 전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사리손의 힘으로 세워진 「槐山학생박물관」。문을 열기도전인데 학생들이 몰려와 金榮會교장이 진열품에관해 설명해주고있다。

槐山 향토문화재박물관이 자리잡은 명덕국민학교(槐山邑面部里)는 清州에서 52㎞ 떨어진 시골학교。「박물관」을 생각할수있는학교라고 느껴질수가없는 조그마한 학교다。

이학교에 지난 20일간 「향토문화재는 고사리손으로 지키자」는 열풍이 몰아치게된 것은 조그만 계의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KBS 清州 주재기자 李炳煥씨는 귀중한 문화재가 장사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마음아팠다。

李씨는 지난5월초 林慶業장군이 그린 釜山陣圖와 「압록강군사배치도」가 한 상품으로 거래되는 현장을 보았다。후손들이 이를 헐값으로 팔아버린 것을 林장군유적기념보존회가 소장자를 찾아가 사정 사정해서 고가로 사오고 있었다。그장면은 무언가 잘못돼있다는걸 의미했다。며칠간 궁리끝에 이를시정하고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터전인 학생박물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이같은 생각은 일부국민학교에서 실시중인 민속교실에서 힌트를 얻은것。

6월초 崔星烈 도교육감(61)에게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각市·郡에 학교씩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향토문화재박물관을 만들자는 제의를 했다。

崔교육감은 즉석에서 이를 찬성했다。다음날 이를 도내 40만 초·중·고학생들의 운동으로 펴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까지했다。

安時重교육청장도 처음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리둥절하고 자신이 없었으나 일부 국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속교실의 경험을 살릴수있을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담임선생들은 학생들에게 「향토문화재박물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상회나 새마을지도자모임에 찾아가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게되었다。

뜻밖에도 반응은 좋았다。지난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12일간의 수집기간동안 3천여점이 쏟아져 들어왔다。어려움이 없었던것도 아니다。문화재를 제대로 아는교사가 없어 군내에서 역사를 아는 15명의 교사를 뽑아오고 그래도 힘이달려 충북대 李隆助교수(역사학과)의 자문을 받아야 했다。

李교수도 거국적인 열의에 감동、BC2천년전의 유문토기 5점과 선사시대 빨연모 11점을 대여해주었다。문화재가 명덕국민학교에 전부 도착한 지난달 26일부터 명덕국민학교의 고사리손들과 교사 그리고 李교수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10일만에 시설은 물론 전시까지 끝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재 전시된 물건은 선사시대 유물20점、삼국시대항아리 9점、고려청자8점、조선시대 분청사기 9점。시대별 유물은 많지않으나 사일·답의·원삼등예복식류와 담뱃대、비녀류 갓집、기름틀、절구、무쇠솥등인데 옛 생활용구는 그런대로 많이 모였다。귀중한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기원전 10세기께의 남근석(男根石)이나、선사시대 연장인 「간돌칼」、정교한 통일신라시대의 瓔珞달린잔、고려시대의 雲鶴청자병등은 일반박물관에서 보기 힘든유물이다。

「영락달린 잔」은 박화순양(廣德국교5년)、소꿉장난감이었고、男根石역시 그 특이한 모양이 재미있어서 金仁洙군(明德국교6년)이 5년동안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다。

「예상외의 일이라 정말 어려웠습니다。진열장 바닥에 깔 천은 커튼을 잘라 만들정도였읍니까요。」명덕국민학교 金榮會교장은 후련해하는 표정이었고 李慧美양(12·명덕국교6년)은 『우리박물관은 충북에 도굴꾼이 많아서 우리는 자라서 그렇게 하지않도록 가르치기위해 만들은것이래요』하며 대견스러운빛을 감추지 못했다。

李隆助교수는 『향토문화재박물관은 가치있는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보호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생활교육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논평했다。【槐山=崔成子기자】

주산교습소 許可받아 독서실서 국교생課外

서울西大門경찰서는 6일 趙春子씨(37·여·서울中區萬里洞1街62의22)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趙씨는 萬里독서실을 운영해 오면서 동생명의로 피아노·주산교습소 허가를 받은뒤 지난3월1일부터 7월5일까지 D금속사장 林모씨(44)의 아들(9·K국교4년)등 5명등 4개과목을 가르쳐주고 한달에 1만5천원씩을 받아왔다는것。

경찰은 과외를 가르쳐온 趙씨와 어린이들에게 과외를 시킨 林씨를 비롯、H건설부장 車모씨(45) P금속 차장 鄭모씨(37) 약사 金모씨(44) 상인 林모씨(42)등 5명의 학부모 명단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관할 中區교육구청에 통보했다。

學生들도 가뭄극복 作業에
全南、各級校 자체行事중지

【光州】全南도교육위원회는 6일 가뭄극심지역학교의 모든 행사를 중지、학생들을 한해극복작업에 동원키로했다。

道교위는 그동안 수업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학교장재량으로 농촌일손돕기와 한해극복작업에 학생들을 동원시켜왔으나 앞으로는 가뭄이 심한지역의 경우 관내 각급학교의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학생들을 가뭄극복작업에만 동원시킨다는것。【聯】

경남巨濟、칼에찔려 새마을지도자 被殺

【忠武】6일상오8시께 경남巨濟郡東部面山村里208 李기훈씨(58)집 건넌방에서 李씨가 칼에찔려 숨져있는것을 李씨의부인 崔옥순씨(52)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崔씨에 따르면 이날건넌방에서 잠자던 남편李씨가 아침이되어도 일어나지않아 깨우러가보니 李씨가 목·가슴등 7군데 찔려 피투성이가된채 옆으로누워 숨져있었다는것。

경찰은 山村里새마을 지도자인 李씨의 시계가 없어진 것으로 미루어 단순강도살인이거나 李씨가 평소 새마을사업을 벌이면서 부락민의원한을 샀을 가능성도있어 원한관계등 두갈래수사를 펴고있다。【聯】

美F16機、全州부근서 墜落

【全州】6일하오2시5분께 전북 全州부근상공을 비행중이던 주한미공군 F16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고 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표했다。

사고비행기는 이날 群山기지를 이륙、정규비행임무를 수행중이었으며 조종사 1명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봉사장학금 對象 50%로 擴大실시
서울대、내년부터

서울大는 오는 83학년도부터 봉사장학금수혜대상폭을 크게 늘려 현재 빈곤도A학생 10%내에서 지급하도록되어있는 것을 50%까지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서울大의 이같은 조치는 면제및 급여장학금등을 받고있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봉사장학금을 지급할수없어 학비조달에 큰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취해진것으로 앞으로는 빈곤한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봉사장학금을 함께 받을수 있게돼 실질적 학비조달에 도움을 줄수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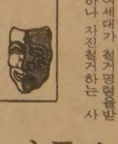
구속된 韓英洙의원 변호인들 保釋신청

간통혐의로 구속된 民韓黨 韓英洙피고인의 변호사인 民韓黨 朴炳一·李官炯·睦燕相의원등은 6일 서울형사지법에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보석신청서에서 韓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주우려가 없으며 검찰수사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지법8단독 曹元旭판사에게 배당했다。

별난公務員
果川출장소 梁瓘雄 관리과장
프로급 書藝家에 지금은「해머隊長」



梁瓘雄씨(47·사진·경기도청果川출장소 관리과장·水原市高等洞山42)。그는 아무래도 엇갈린 인생을사는 사람이다。공무원 생활을하면서 서예가 프로급이고 3년째 출강을하는 교사인가하면 판자집철거해머부대의 일선부대장이기도 한것이다。15년전 공직에 몸담기전 梁씨는 당시 서울龍山區二村洞 하천부지에 난립했던 무허가판자집에 살았다。그러던중 서울시의 개량계획에따라 2백여세대가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누구하나 자진철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 어느날 기동경찰을 앞세운 구청의 해머부대가 들이닥쳤다。해머부대는 인정사정없이 판자집을 때려부쉬 그도 졸지에 거리에 나앉았다。

그랬던 梁씨가 「기구하게도」이제는 신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果川에서 철거의 일선책임자로 일하고 있다。해머가 쉽게 손에 잡힐리가 없고 마음속이 편할리야 없다。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랏일을 그르칠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는 국민학교때 日本전국서예전에서 銀상을 받았고 지난76년 제1회 전국공무원 서예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80년엔 日本미국예술계에서 초청、현지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晉州사범을 졸업한 그는 한때 교편생활을 하다가 보다 폭넓은 대민봉사에 뜻을 두고 사무관 특채시험에 응시、지난79년12월부터 경기도교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년전부터는 내무부연수원 고급간부양성반에서 강의도 맡고있다。

그는 해머부대를 이끌고 다니는 사이 여가만 생기면 서예를 즐긴다。국민학교때부터 익히기 시작한 서예는 특출해 江華유적지의「利涉亭」水原의「長安門」현판을 쓸 정도로 프로급。

果川사람들은 그의 「판자집전력」때문인지 그가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평한다。

『매사가 그렇듯 양쪽의 주장에는 각각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을 하는입장이나 철거를 당하는 주민이나 모두 할말이있는것이지요。문제는 정당하고 현실적인 이해를 할수있도록 설득할수 있느냐에 달려있읍니다』【崔成基기자】

『政府시책비판 保安法위반아니다』
李鎬喆에 징역1년
釜山地法 선고

【釜山】釜山大교내시위주도및 釜林사건과 관련、징역10년이 구형됐던 李鎬喆피고인(23·무직·부산東萊區溫泉2洞991)에게 국가보안법부분은 무죄、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계엄법은 유죄로 인정、징역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 단독 徐錫九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계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李鎬喆피고인에 대해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하여 이를 확대해석、국가보안법으로 다룰수는 없다』고 판시、계엄법、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만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李鎬喆피고인의 은닉및 도주를 돌보아주고 집회등에 참가한 鄭貴順피고인(21·여·釜山工大3년·부산東萊區長箭1洞275의24)에게는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薛敏惠피고인(23·여·강전국교교사·부산南區大淵1洞1008)에게는 薛피고인은 오빠가 구속돼있으며 확고한 신념으로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고 감상적이였다는점을 인정、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들 피고인의 일부행동이 과격해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의 장점은 관용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지난 6월22일 결심공판에서 李鎬喆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계엄령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鄭·薛 피고인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계엄법 범인은닉 범인도피 위반죄로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聯】

◇비소식 감감…새끼곰도 덥다

비소식은 감감한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찌는듯한 무더위로 견디다못한 昌慶苑의 새끼곰이 아예 물속에잠겨 움직이질 않는다。6일의 낮최고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32도를 기록했다。

海外토픽

백화점서 전갈出現
★東京시내서 기르던게 탈출

東京시내 인파로 매우 붐비는 한백화점2층에서 난데없는 전갈 한마리가 나타나 모두를 아연실색케했으나 곧 생포되었다고。

東南亞에서 관상용으로 수입된듯한 이전갈은 길이가 9cm로 생포시 집게발을 넓게 벌리고 있었다고 경찰이 귀띔。【東京=AP】

蘇言語생활 난맥상
★4천만이상이 露語못해

소련의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어를 전혀 못하거나 단어 몇개만을 알고있는 소련인이 4천만명이 넘는다고 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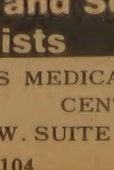
소련공산당정치국후보위원 보리스·포노마료프는 최근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비러시아계소련인 1억3천3백만명중 3분의1이상이 러시아어를 겨우 조금 알아듣거나 또는 전혀 회화를 못한다고 지적。

그는 이같은 현상은 교육체제가 잘못된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 사용권이외의 지역학교들은 러시아어교육에 보다 열의를 가지고 임할것을 신신 당부。【모스크바=聯】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537-3104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 각종의 리스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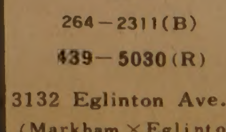
◉Variety Store($59,000): 주매상 $6,000선. 이층에 살림집. 건물과 대지도 함께 매매가능.
◉Hamburger Shop($35,900): 주매상 $1,800선. 미시사가 요지.
◉Tuck Shop($29,900): 주매상 $2,500. 미시사가.
◉Donuts & Video($59,900): 40석. 20대 Video 라이센스
◉Card & Gift($59,000): 짧은시간, 편한일, 다운타운.
◉Restaurant($119,000): 85석. L.L.B.O주차장. 건물매매 가능.
◉Apartment($1,290,000): 52세대. 7년.
◉Investment Card($499,000): 100에이커. 전망좋음.
◉Gas Station($299,000): 2·4에이커 대지와 살림집 포함.
◉House($189,000): 단층, West End, Double Gar.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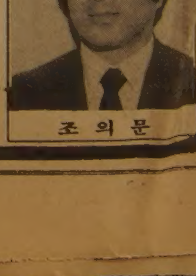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西獨 프랑스 4強압축 폴란드 이탈리아

伊, 最強브라질 제압

로시 혼자 3골… 세계가 "깜짝"

월드컵축구

스페인·잉글랜드 비겨 西獨이 漁夫之利

3-2

【마드리드5日=聯合】 제12회월드컵축구대회는西獨—프랑스, 폴란드—이탈리아의 4강대결로압축됐다. 이탈리아는 6일 새벽 (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사리아 경기장서 벌어진 2차리그 C조 최종경기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강한 브라질을 3—2로격파, 대회개막이래 가장 쇼킹한 파문을 일으키고 4강의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B조의 잉글랜드와 스페인은 마드리드서 벌어진 최종전서 0—0무승부를 기록, 1승1무의 西獨이 잉글랜드를 골득실차로 누르고 준결승 진출권을 획득했다. 南美가 완전침몰하고 유럽팀끼리 4강전을 벌이는것은 66년 잉글랜드월드컵 (잉글랜드、西獨、포르투갈、소련) 이래 처음이다.

그누가 브라질이 이탈리아에 덜미를 잡히리라고 예상했을까. 2차 리그에서는 또한명의 빛나는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했다. 이탈리아의 센터포드인 파올로·로시 (25)。로시는 對 브라질전서 연속 3골 (5분、25분、74분)을 터뜨려 이번 대회 세번째 해트 트릭을 기록、스페인 월드컵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마지막 南美勢의 침몰 월드컵축구 2차리그 이탈리아—브라질경기에서 이탈리아의 파올로·로시(左)가 브라질의 GK 페레스를 제치고 결승골을 터트리고있다。이탈리아가 3—2로 이겼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6일UPI電送=聯合】

로시、伊최고 스트라이커
한때 勝負조작 스캔들도

파올로·로시는 가장 필요한 때에 자신의 예실력을 되찾았다。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헤집은 로시의 모습은 1차리그때의 로시가 아니었다。

4년전 아르헨티나에서 뛰던 영·스타의 재현이었다。

지난 4년간 로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치욕의 그늘로 물러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2년간 태만했고 의욕도 저하돼 있다。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한다』지난달 로시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밝혔다。

로시는 79년 이탈리아리그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당시 로시는 페루자팀 소속이었는데 실력이 뛰어난 페루자가 로시의 2골로 상대팀과 2—2 무승부를 기록하자 로시가 돈을 먹고 승부를 조작했다고 밀고 한것。

로시는 결백을 주장했고 이탈리아법정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탈리아축구연맹은 2년간 그의 선수자격을 정지시켰다。

그동안 결혼을한 로시는 3백만달러에 유벤투스로 소속을 옮겼고 유벤투스가 20번째 국내선수권을 차지하는데 공헌했다。

스페인월드컵에서 로시는 다시 제모습을 찾기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탈리아임원들은 로시가 실력의 80%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할것으로 평가했다。오산이었다。

◇2 차리그 전적표

조	팀	승	무	패	득	실
A	☆폴란드	1	1	0	3	0
	소련	1	1	0	1	0
	벨기에	0	0	2	0	4
B	☆서독	1	1	0	2	1
	잉글랜드	0	2	0	0	0
	스페인	0	1	1	1	2
C	☆이탈리아	2	0	0	5	3
	브라질	1	0	1	6	4
	아르헨티나	0	0	2	2	5
D	☆프랑스	2	0	0	5	1
	오스트리아	0	1	1	2	3
	북아일랜드	0	1	1	3	6

☆표는 준결승진출팀

伊 전국이 狂亂…수백만市民들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

대통령도 기쁘다

◆…이탈리아가 브라질을 격파하자 이탈리아전국은 광란에 빠져들었다。

수백만명의 로마시민들이거리로 뛰쳐나와 삼색기를흔들며 국가를 부르며 『이탈리아／이탈리아／』를외쳤고 경적을 울리며달리는 자동차로 큰 혼잡을 빚었다。

일부극성팬은 자신의 셔츠를 찢었으며 한식품가게 여주인은 상점안에 진열된 소시지를 길가에 내던지며 이탈리아 남성들의 기개를 찬양하기도。

한편 파리를방문중인 85세의 산드로·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대사관서 TV로 경기를관전, 골이들어갈때마다 『食食!』외쳤다고 안사통신이 보도。

페르티니 대통령은 『기쁨을 가눌길 없다』고 코멘트。

또싸우면 이긴다

◆…브라질의 패배를 TV를 통해 지켜본 국내 팬들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만 짓고있었다。

리오데자네이로의 거리는 對아르헨전 승리때와는 달리 정적이 감돌았 으며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은 「꿈은 깨졌다」고 중얼거리면서 풀죽은 모습을 보였다。

한택시운전사는 『나는여전히 브라질을 세계최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 이탈리아와 대전할 기회가있다면 반드시이길수 있을것』이라고 자위하기도。

월드컵通信

"꿈은 깨졌다"… 브라질首都 정적싸인채 침통한 분위기

브라질敗因 放心

◆…축구황제 펠레는 자신이 해설을 담당한 스페인 에페통신과의 회견에서 브라질의 패인은 2—2로 비기고있는 상황에서 수비를 너무 등한히한데 있다고 지적。

그는 西獨을 포함, 유럽팀이 점수를지키려할때 10명의 선수를 門前에 포진시키고 있는데반해 브라질은 여전히 공격에 치중했다면서 그러나 승패에 관계없이 브라질의 적극적인 자세는 칭찬받아야할 것이라고 논평。

『나는 브라질의 탈락에 대해 슬퍼하지않을수없다。브라질은 「축구의 낭만주의」를 뜻하기때문이다。축구의 낭만주의가 기적앞에 무너진것이다。아직 기적을 연출할수없을것으로 보이던팀 (이탈리아) 의 기적앞에서…。』

담담히 敗北인정

◆…산타나 브라질감독은 對이탈리아敗因을 파울로·로시를 타이트·마크하지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위대한 선수』라고 찬양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게임에서 對 아르헨티나전때 보다는 더 잘싸웠으며 아직도 우리가 이길수 있는 게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南美킬러

地球를 뒤흔든 이탈리아蹴球

월드컵 2連霸한 유럽의強豪 守備위주서 최근 攻擊型전환

이탈리아 축구의 전성기는 1934년부터 38년까지 「파시스트 時代」4년간이었다。34년 제2회 월드컵서 체코를 2—1로물리치고 우승을차지한 이탈리아는 36년 올림픽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38년제3회 월드컵 결승서 당대의강호 헝가리를 4—2로 제압, 월드컵 2連覇를달성했다。

70년 멕시코 월드컵 준우승, 78년 아르헨 월드컵 4위。월드컵 3覇의 영광을 브라질에 빼앗겼지만이탈리아가 이번 월드컵서우승한다면 44년만에 누리는 감격이다。

이탈리아가 최강 브라질을 꺾고 4강에 오르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승리는 더욱 충격적이다。

빗장수비로 이름난 이탈리아축구는 강력한 맨투맨 디펜스(對人방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득점기회를 잡아 일단공격에 불이 붙으면 이탈리아인의 기질처럼 격정적으로 밀어붙인다。

이탈리아를 4강으로 올려놓은 숨은 공로자는 금년 40살의 노장GK 디노·조프 (1m82·주장)。이번까지 4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조프는 72년9월〜74년7월까지 1천1백45분간 무실점을 기록한 세계적 GK이며 브라질과의경기서도 선방했다。

이탈리아가 우승후보로 떠오르지 못한것은 지역예선성적이 나쁘고、엔조·베아르조트 감독이 매스컴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받은 때문이다。

75년9월 발카레기 감독을 후계하여 대표팀을맡은 베아르조트는 유벤투스팀선수 7명 (조프、젠틸레、카브리니、시레아、타르델리、로시등)을 주축으로 대표팀을 구성、언론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유벤투스만을 편애한다는 것이다。

수비만 잘해서는 이기지 못한다는게 베아르조트 감독의 신념。

78년 월드컵과 80년 홈그라운드서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서 실패를경험한 베아르조트는 궁지에 몰렸으나 공격적 축구에대한 신념을 버리지않았다。

치명타가 된것은 이탈리아리그 최다득점선수인 헤딩의 명수 로베르토·베티가를 잃은것。지난해 11월 왼쪽 무릎을 크게 다친 베티가는 로시와 콤비를이룬 선수여서 대표팀의 공격진에 큰구멍이 뚫렸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프랑스에 2—0、東獨에게 1—0으로 패하여 국민들은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으나 2차리그에서 南美의 양대산맥인 아르헨과 브라질을 연파、南美킬러로서 저력을 인정받았다。 【安泰煥기자】

金在博수훈… 決勝홈런

실업야구

韓化、韓一銀깨고 2위올라

침묵을깬 국가대표간판 金在博이 결승솔로호머를 날려 韓國化粧品에 1승을 더해주었다。

6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실업야구 하계리그 11일째경기서 韓國化는 안타수8—13의 열세에도 불구, 金在博의 4회말 결승호머와 국가대표 주전포수 沈載元의 2타점수훈에 힘입어 韓一銀行을 8—5로 제압했다。

韓國化는 4승3패로 星武와 공동2위에 올라섰다。

韓國化 1번타자인 金在博은 經理團、商業銀、韓電과의 잇단 3게임서 무안타로 부진하다가 5일 星武와의 대전서 비로소 5타수3안타로 활기를 되찾았다。

沈載元은 이날 1회말 반격서 동점타를 날렸으며 3회말 두번째 타석에서도 좌전적시타로 타점을 올려 韓國化 승리에 공헌했다。

◇11일전적

한일은행 (1승2무4패)
310 000 010—5
401 102 00×—8
한국화장품 (4승3패)
◀홈런=金在博 (4회·한화)

포철 (1승3무2패)
000 010 300—4
001 100 200—4
한일은행 (1승2무3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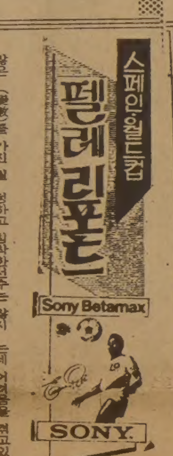
매년 한국선수초청
在캐나다 韓人會長

8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 캘거리市의 李원재한인회장은 6일 李源京체육부장관을 예방하고 『모국의 스포츠발전을 위해 한국선수단을 초청하겠다』는 캘거리한인체육회장 車광준씨의 말을 전했다。

한인체육회는 특히 한국의 동계스포츠발전을 위해 매년 선수2명、코치1명씩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노래제목넣은 셔츠
韓知姬양 팬에선물

신곡 「춤추는 대서울」(일명 올림픽·송)로 각광을 받고있는 신인가수 韓知姬양이 노래제목이 인쇄된 T셔츠를 만들어 팬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등 자기PR에 열을 올리고 있다。



伊콘티選手 새스타로 등장
마라도나 名聲유지 어려움
잉글랜드·西獨경기 하품만

많은 (變數)를 가진 월드컵대회에서 뜻밖에도 이탈리아가 브라질의 방해물로 등장했다。

이탈리아는 장기(長技)인 강력한 수비에다가 창조적이고 균형을갖춘 반격작전으로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꺾었다。

이탈리아의 플레이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것은 문전혼전에서 펼친 브루노·콘티의 기술이다。콘티의화려하고 냉정한플레이로 카브리니는 이탈리아의 두번째 골을 넣을수 있었다。이 월드컵에서 콘티와같이 냉정하고 침착한선수는 많지 않다。

이탈리아가 무자비한 마킹과 야수와 같은 태클로 마라도나를 처치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승리는 가치가 없다고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물론 양쪽모두 거친 플레이를 보였다。

그러나 루마니아人 주심 라이네아씨는 어려운 상황을 잘컨트롤했다고 생각한다。

마라도나는 어떠했는가。

대회 시작 오래전부터 「월드컵의 王」으로지목된 이 젊은이는 이 지위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탈리아의 젠틸레는 마라도나를 완전히 가려버렸다。이때문에 젠틸레는 경기장밖에서 매스컴의 추적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젠틸레는 결코 젠틀하지 않았다。

마라도나의 개인적 재능은 의문의 여지가없다。

그러나 마라도나는 벨기에와의 경기에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이탈리아와의 대전에서도 젠틸레의마크를 뚫지못했다。그는 넓게 활동함으로써 자신보다는 동료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옳았다。

젠페스와 디아스 역시고정된 플레이를 했다。이탈리아에 승리가 돌아간것은 정당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적절치못한 플레이에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서 브라질을 이길 준비를 갖추지 못한것같다。

브라질은 이탈리아의 맨투맨 수비와는 달리 지역방어를 더 좋아하므로 마라도나와 그의동료들은 이탈리아와의 경기때보다는 더많은 공격의 공간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세레조가 주로 마라도나를 맡을것이다。그렇지만 그는 경기장 끝까지 마라도나를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이다。브라질은 그런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호텔에서 TV로 잉글랜드와 西獨의경기를본 나는 하품을 하지않을수없었다。

경기가 0—0으로 끝나자 잉글랜드의 론·그린우드 감독과 西獨의 유프·데어발감독은 서로껴안고 경기장을 떠났다。팀에대한 존경심을반영한 장면이었다。

이게임은 상대에게 어떠한 헛점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섀도·복싱 같은것이었다。

잉글랜드는 미드필드의 조직력이 강했고 FW진들의 자세가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이같은 우세는 근소한 것이었다。

西獨은 主砲인 루메니게가 다리를다쳐 핸디캡을 안은 것으로 보였다。

美、加꺾고優勝
존즈盃남자농구

【臺北5日=聯合】 美國은 5일밤 벌어진 제6회 존즈컵국제남자농구선수권대회 최종일경기에서 캐나다를 79—62로 꺾고 全勝으로 이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프랑스는 自由中國을 76—69로 물리쳤으며 스웨덴은 콜롬비아를 85—80으로 이겼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달 ⑧

코피를 마시면서 일환이의 표정도 밝게 들떴다。

『네가 복이 좋은가봐』

『집을 봐달라는 전 무슨 뜻이죠?』

『돈푼이나 있는 집 여편네들은 싸돌아다니길 좋아하거든。나가고 싶을때 집 볼 사람이 없으면 환장을 한다더군。여북해야 집세를 안받고 집을 봐달라나』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집세는 버는 셈이네요?』

『그래、똑똑하긴』

『돈만 번게 아니라 당장 집 보러다닐 시간도 벌었으니 그 동안에 내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오목이는 당장의 작은 행복에 한껏 어리광부리고싶어 콧소리로 흥얼댔다。

『그럼 들어주고말고、뭔데?』

『얼른 목욕 갔다가 옷 갈아입고 나와요。제일 좋은 옷으로』

『왜、작업복 입은 남자하고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한가?자존심 상하는데、싫다면?』

그러나 일환이는 자존심 상한 것 같지도 싫지도 않아 보였다。그 역시 오목이의 어리광이 귀여워 못견디겠다는 낯간지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창피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예요。그리고 나서 꼭 갈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다녀와요』

『허어、때 빼고 광 내고 가야할 데가 어딜까요?궁금한데』

『사진관?』

일환이가 눈을 크게 떴다。경계하는 눈초리였다。눈뿐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생활에 대한 설렘과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든 여자에 대한 만족감으로 기분좋게 풀어져있던 몸이 질린 것처럼 꿈틀 긴장하는게 보였다。

『왜 그래 오빠?』

오목이는 자기도 모르게 전의 말투로 물었다。

『사진관은 뭣하러?』

『사진 찍으러。결혼식 대신 사진이라도 찍어서 걸어놓고 싶어서 그래』

『싫어』

일환이가 딴 사람같이 성난 목소리로 칼로 베듯이 잘라 말했다。

『너무 해。그 정도의 소원도 못들어 줄게 뭐야。그 오빠 내가 싫은가봐。그치?임시적으로 데리고 살 속셈이지?아이 분해』

그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미처 주체할수가 없어 울먹이기부터 했다。

『입 닥치지못해。더 엄석부리면 때려줄테다』

평소의 작은 눈을 크게 뜨니까 살기등등해보였다。

이것이었나。오목이는 그녀가 오전내내 면사포대신 꿈꾼 한장의 사진이 몰고온 이첫풍파에 차라리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그래 오빠?』

입밖에 난 건 겨우 이 첫 마디였다。

『넌 발도 없냐?솔개도 없어?사진이라면 지긋지긋하지도 않아?때빼고 광내고 때때옷 입고、배부른 척 행복한척 웃으면서 사진을 좀많이 찍혔냐?선물 한보따리 싸가지고 손님이 왔다하면 우리고아들은 누가 시키지않아도 벌써 사진 찍힐 표정을 꾸미는게 꼬마 배우보다 더민첩하고 간사스러웠지。적당히 천진하고 적당히 가련하고、너무 배불러보이지도 말고、너무 배고파보이지도 말기가 그런 사진에서 주인공 노릇을 할수있는 더러운 요령이었던 걸 넌 벌써 잊었니?』

인사 말씀

금번 강정숙여사가 주정부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를 획득,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에서 일하게 됨을 인사드리오며, 이 회사는 여러분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종합부동산회사로서 더욱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정숙 여사는 주택매매 전문이오니 주택매매에 대한 모든 문의를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 (416) 449-8644~5 (B),
745-1915(R)
강정숙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식당

Rose Garden Restaurant

◎8월3일부터 FULLY술 판매허가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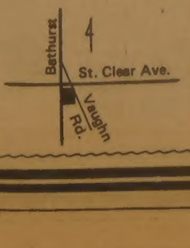
각종 중국요리 전문
각종 파티 주문 배달

* 회의실 완비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목 11 : 00 AM— 1 : 00 PM
금~토 11 : 00 AM— 2 : 00 AM
일요일 4 : 00 PM—10 : 00 PM

538 ST. CLEAR AVE. WEST
TORONTO, ONT.

656—0456 654—6609 유창균



정씨농장 채소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농장에서는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교포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의 주식인 배추와 무우를저렴한 가격에 특별봉사 하고자 합니다.

소매가격 ● 배추 16¢ (Lb당)
50Lb 1BOX에 $8.00
● 무우 20¢ (Lb당)
50Lb 1Bag에 $10.00

일시 : 1982년7월7일부터~
판매장소 : 시내 각 식품점

RRI Wainfleet Ont, L0S 1V0
1—899—1154
정씨농장 주인 백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經協「早期타결」原則만 합의

商品借款규모엔 계속異見

日外相 곧訪韓
各級레벨 交流강화키로

【東京=宋孝彬특파원】李範錫외무장관은 5일상·하오 두차례에걸쳐 日本외무성에서 사쿠라우찌(櫻內義雄)外相과 4시간동안 韓日外相회담을 갖고 經濟협력문제등 두나라간의 현안문제와 韓半島정세등 국제정세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교환했다.

이날두차례에 걸친 회담이끝난뒤 孔魯明외무부차관보는 회담에서 양국외상은 현안인 韓日經協문제의 早期타결을위해 계속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東京서 韓日外相회담 "韓半島긴장 留意"

회담에서 한국측은 특히 韓日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ODA(정부개발협력자금)차관의 증대와 상품차관의 공여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대해 일본측은 지난번 야나기야(柳谷謙介)외무성심의관이 제시한 經協案에 관해 기본적인 構想을 설명, 이해를 촉구했으나 양국관계의 역사적특수성에 비추어 한국측의 요청에 대해 일본정부안에서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한국측요청을 검토키로했다고 孔차관보는 밝혔다.

양국외상은 또 經協문제에 관해 서로의 입장을 기탄없이 밝히고 의견을 교환, 상호입장을 접근시키는데 유익했다고 그는 전했다.

양국외상은 또 조속한 시일내에 사쿠라우찌外相의 訪韓을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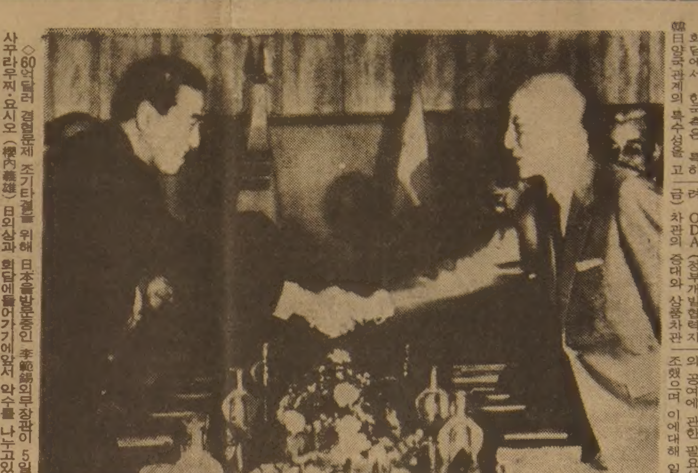
이날 회담에서 최대이슈인 經協문제와 관련, 日本측은 종래 거부해왔던 商品借款을 日本이 협력하는 사업에 대한 內資조달용으로만 제공한다는 뜻을 밝히고 구체적인 額數는 제시치 않았으나 관측통들은 최대한 5억달러 이내가될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측이 종래제시했던 60억달러의 經協요청안에 대해 엔(円)借款(정부開發基金·ODA) 23억달러, 상품차관 17억달러등 40억달러의 經協案을 제시한데 반해 日本측은 지난 4월말 외무성의 야나기야 심의관의 訪韓때 제시한 円차관 15억달러, 수출입은행융자 25억달러등 모두 40억달러에 얼마간의 상품차관을 더 제공할 뜻을 비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외상은 또 이날회담에서 美蘇의 데탕트정책이 瓦解되어 세계정세의 안정요인이 흔들리고 있으며 南美·中東등 지역분쟁이 날로 심화되고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蘇聯의 군사력증강과함께 北韓의 계속적인 무력증강은 韓半島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있을뿐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한 南北분쟁의 긴장요인이 되고있다는데 의견을같이 했다.

이날 李장관은 사쿠라우찌外相이 자신의 訪美성과를 들은데 대해 『미국의 對韓정책은 不變이며 駐韓美軍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종래의美정책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쿠라우찌外相은 한국이 제3세계국가들과 관계를 개선, 우호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높이평가하며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韓日양국은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60억달러 경협문제 조기타결을 위해 日本을방문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이 5일아침 사쿠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 日외상과 회담에들어가기에앞서 악수를 나누고있다. 【東京5日AP電=聯合】

韓日外相회담 發表내용

韓日양국외상은 다음과같이 합의했다.

兩國外相은 이번 회담으로 상호우의를 돈독히하고 韓日관계의 현안문제에 관해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 유익한 성과를 얻었다.

양국관계는 국민적 기반에 입각, 구축되는것이 좋다는 의견에 일치하고 韓日양국은 各級레벨의 교류를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양국外相은 현안문제인 經協문제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 韓日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측이 ODA차관의 증대와 상품차관의 공여에 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지난번 야나기야(柳谷)외무성심의관이 제시한 經協案에 관해기본적인 구상을 설명, 이해를 촉구했으나 양국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측의 요청에대해 일본정부 내에서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요청을 검토키로했다.

우리측은 經協문제에관해 두나라 외상은 양국의 입장을 기탄없이 교환함으로써 상호입장을 접근시키는데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이 현안문제의 早期타결을 위해 계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합의했다.

양국外相은 또한 한반도긴장상태가 尙存하고 있음을留意,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한국의 安保노력과 南北대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에 대해 일본정부는 높이평가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한다.

사쿠라우찌外相은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을방문키로 합의했으며 各級실무자회담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했다.

金값 오르면 輸入자유化

7·3조치補完대책 不動産등 實物투기 봉쇄

公職者재산등록白紙化、相續稅率낮춰

정부는 내년부터 예금, 주식, 국공채, 회사채등 모든 금융자산거래가 實名制로 바뀜에 따라 부동산, 金매입등 실물투기를 봉쇄하기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한편 현재분리과세되고있는 은행이자및 주식배당소득의 綜合課稅를 계기로 소액금융자산소득에대한 편의세금적용제의 도입,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백지화등 일련의 보완대책을 세우기로했다.

5일 재무부에의하면 금융자산거래의 實名化조치에 따라 야기될지모르는 부동산등 實物投機는 철저히 봉쇄할방침이며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면 ▲양도소득세의 종합소득세합산과세 ▲부동산거래 허가제등 가능한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金매점현상이 일어날경우에는 정부보유금의 매각, 金수입자유화등 물량 공급을 대폭늘리는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7·3조치로 은행예금의 인출등 금융자산이동이 급격히 나타날것으로보고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으로 5일부터 거액예금이동상황을 日日점검, 철저히 파악하기로했으며 현재 가명,무기명으로 되어있는 예금들이 빠져나가 음성私債로 잠적하거나 가족·친지의명의로 분산,實名化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를 포탈하는것도 철저히하도록 대책을 세우기로했다.

재무부는 7·3조치로 주식의 양도차익, 은행이자및 주식배당등이 綜合課稅될에따라 ▲봉급생활자의 소액이자수입이나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納稅에 편의를주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현행 증권거래세의 폐지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함에따라 상속세율도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40%선으로 인하, 종합소득세율과 형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實名거래 관련 資金 海外도피우려"

民正,副作用방지 補完대책 마련

民正黨은 정부가 지난3일 발표한 금융의 實名去來制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보고 補完對策을 강구키로했다.

陳懿鍾정책의장은 5일상오 『實名去來制 실시과정에서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은행예금이 빠져나가 자금이해외로 도피할 우려가크고 貴金屬 또는 부동산投機등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산업자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豫見된다』고 말하고 『黨정책위산하재무분과위를중심으로實名去來制실시에따른제반문제점을 면밀히검토,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위해 外換관리법시행령등 몇가지 관련법규의 폐지·개정·강화가 先行되어야한다고 말하고 預·積金비밀법폐지,相續稅·贈與稅소득세·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의 개정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陳의장은 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私債陽性化방안의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실시 시기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후에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어 내년부터 실시한는데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全대통령、亞洲복싱선수 接見환담 招致

全斗煥 대통령은 4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10회 아시아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라이트웰터급의 金東吉선수등 선수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이들을 치하격려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선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기량을 닦아나가면 다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무난히 딸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印尼公共사업相도

全斗煥대통령은 5일 하오 청와대에서 인도네시아의 포에르노모시디·하지·사로사 公共事業省장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平和協商 瓦解기미

레바논南部外廓서 砲擊戰 계속

【베이루트4日發·AP=聯合】이스라엘 정부는 4일 약5천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레바논에 잔류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레바논 평화안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베이루트 시에서의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결전을 회피하기위한 길고 어려운협상이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정부대변인은 이날 시론·페레스 노동당수를 비롯한 각 정당지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끝난후 이스라엘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팔레스타인들의 레바논 잔류를 허용할수 없으며 오직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완전철수만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大統領에 마드리드當選

【멕시코시티5日AP=聯合】4일 실시된 멕시코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제도혁명당(PRI)의 미구엘·데·라·마드리드·후르타도후보가 6명의 야당 후보자들을 압도적인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고 멕시코내무성이 5일발표했다.

내무성은 선거결과가 너무늦게 도착하고있어 아직정확한 마드리드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기록했다고 밝혔다.

軍事실험등 완수

콜럼비아 無事귀환

아스팔트滑走路 史上첫着陸성공

【에드워즈공군기지(캘리포니아州4日UPI=聯合)】미국의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7일간에 걸친 마지막 4차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정대로 4일상오9시9분(한국시간5일새벽1시9분)에드워즈공군기지의 콘크리트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2백6번째 미국독립기념일인 이날 에드워즈공군기지주변에는 콜럼비아호의 귀환을 보기위해 약50만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으며 레이건대통령과 부인 낸시여사도 앞서 세차례의 콜럼비아우주여행에 참여했던 조종사들과 나란히 서서 콜럼비아호의 착륙을 지켜보았다.

사상최초로 극비군사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콜럼비아호는 발사부터 착륙까지 거의 완벽하게 모든 임무를 수행했는데 나사(美항공우주국) 직원들은 콜럼비아호의 마지막 시험비행이 완벽했다고 밝혔다.

루이스씨는 이번 4차비행의 주요성과는①화물칸의 굽곡진 문(門)들을 비롯, 선체를 극한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시켜 그 반응을 자세히 조사한것②인공위성이나 기타 화물을 궤도에 올려놓거나 이를 회수하는데 사용될 원격조종 로보트 팔을 여러모로 시험한것③지구상에서 생산해내기 어려운 의약품및 기타물질을 우주에서 생산해내도록 이끌지도모를 방법을 무중력상태에서 실험한 콜럼비아호의 첫번째 상업적 적하물④사상처음으로 예정대로 케네디우주센터를 이륙한것등 4가지라고 덧붙였다.

◇美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가 4일 에드워즈공군기지에 성공적으로 착륙한후 토머스·매팅리(左)와 엔리·하츠필드등 두우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건대통령이 군중들의 환호에 답하고있다. 【에드워즈空軍基地4日AP電=聯合】

社會漫評

地平線

작년 4월15일 우주왕복선 콜럼비아가 첫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왔을때, 레이건 대통령은 말했다.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巨人된 느낌이다』 全斗煥대통령은 그에게 축전을 보내 말했다. 『이번 장거는 우수하고 세련된 미국 기술의 정수이며… 인류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콜럼비아는 4일 아침9시9분(現地時間)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내림으로써 4번째, 마지막 나들이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은 마침 미국의 2백6주년 독립기념일. 레이건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우리가 거둔 이 믿을수 없는 성공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왕성한 개척자 정신에 불타고있음을 입증했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외쳐온 레이건 대통령에게는 득의의 순간이 아닐수가 없다.

▼콜럼비아의 4차례 시험비행성공은 69년7월21일 인간을 달에 올려놓은 아폴로11호와 맞먹는 쾌거다. 그러나 아폴로와 콜럼비아사이 13년간의 기술발전은 엄청난것이있다. 아폴로11호는 단1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콜럼비아는 5대의컴퓨터로 통제된다. 로키트의 추진력은 그사이 5배로 늘었다. 아폴로 계획에는 2백40억달러가 들었으나 콜럼비아계획은 그 반으로 족했다. 그만한 혁신이 있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아폴로는 우주탐색이란 의미를 넘는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콜럼비아는 우주개발과 실용의 문을 열었다. 이제 콜럼비아는 2호선 챌린저(挑戰者), 3호선 디스커버러(發見者), 4호선 아틀랜티스로 이어지며, 오는 11월에는 우주왕복선의 첫 상업비행을 시작하고, 87년에는 50인승 우주버스의 관광여행이 가능해 진다. 그 다음은….

▼우주를 향한 꿈이 미국의 우주발사기지에 쏠려 있는 동안 東京發외신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有人우주정거장 건설계획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90년대에 이룩될 이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의 과학기술청 관리들은 오는 가을 미국으로 건너간다. 일본의 우주사업개발공단은 그들나름의 우주왕복선을 90년대에 발사할 것을 계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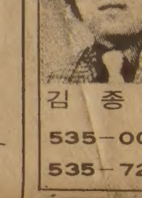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 콜럼비아소식은 시원한 화제거리다. 「2백년 友邦」미국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축하할만하고, 「技術일본」의 도약이 대견하다. 그러나 87년 첫우주관광선이 떠날때, 다시 몇해를 지나 우주정거장이 섰을때,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그때가서도, 우주에 펼치는 人類의 꿈을 그저 대견스럽게만 보아야한다면, 흐뭇하기 앞서, 서글퍼질것만 같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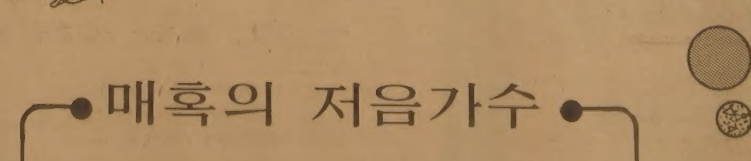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앵콜쇼
기간 : 7월 2일 부터
매주 금, 토, 일 저녁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 기적소리만
망향·향수 · 무정한 여인 등 20여곡

거구장
매혹적인 저음의 노래로 지난봄"거구장" 고객 여러분을 흐뭇한 정서에 젖게 해드린 인기가수 배성이 여러분앞에 다시등장! 앵콜쇼로 모시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후1시 ~새벽1시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742-1618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무슨 고기를 집에 사가지고 갈까 판단이 서질 않는데"

♫ "최상품 쇠갈비는 맛이 신묘하고 돼지고기도 훌륭하지만 내가 제일좋아하는것은 램찹이죠" 註 : Lamb chop : 두껍게 자른 양고기。

"어떻습니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됐나요?" "그렇소"

"채식주의자가 될 작정이오"

이스라엘、레바논南部에 基督敎민병대 擴大배치

撤軍후 게릴라막게

이스라엘은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들을 팔레스타인 게릴라들과 레바논 좌익세력들이 장악하고있던 지역에 확대배치 레바논침공 이스라엘군의 철수후남부 레바논을 기독교 민병대수중에 넣어두기위한 조치를 취한것으로 4일 알려졌다。【시돈(레바논)=AP】

副主席職 상실할듯 華國鋒、1中全계기

작년여름 中共黨『제11期 6中全會』에서 黨주석에서 鄧小平일파에게 밀려 黨주석에서 부주석으로 강등됐던 華國鋒은 금년말로 예상되고있는 黨의『제12期1中全會』에서 부주석은 물론 黨中央 政治局員직위까지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것이라고 홍콩의 유력한 明報가 4일 보도했다。【홍콩=聯】

希、大幅改閣단행 經濟難 타개위해

아드레아스·파판드레우 그리스수상은 3일 경제난타개를 목표로한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각료 23명、국무상 27명으로 확대된 새내각에 3명의 실무전문각료를 새로입각시켰다。

파판드레우수상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汎그리스社會黨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지 9개월만에 단행한 이번 개각을 통해 2일밤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전각료들중 4명을 경질하고 또다른 4명을 전임시켰으며 7명의 새각료를 입각시켰다。【아테네=AP】

아랍聯使節 곧訪蘇

아랍연맹각료위원회 사절단이 레바논정세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를위한 대소의 지원방안등을 협의키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2일 밝혔다。【타이프=AP】

印·蘇 군수뇌 회담

印度육군참모총장 크리시나·라오장군이 3일 모스크바공식방문일정을 마치기 앞서 드미트리·우스티노프소련국방상과 만나 회담했다。

라오장군은 지난달 29일 우스티노프국방상과 1차회담을 갖는것으로 소련軍部지도자들과의 회담과 軍部隊시찰등을 포함하는 공식방문일정을 시작했었다。【모스크바=聯】

人工衛星工場 건설 日本電氣 25억投入

일본최대의 반도체메이커인 일본전기는 요꼬하마(橫濱)에 일본최초의인공위성대량생산공장을 건설했다고 이 회사의 우주개발담당책임자인 구로다·류지씨가 4일 말했다。

구로다씨는 日本전기가 총 25억엔(9백80만달러)을들여 부지면적 6천㎡규모의 5층짜리 인공위성대량생산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히고 이 공장은 각각 1톤무게의 4개위성을동시에생산할수있는설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말했다。구로다씨는또이공장이▲위성조립시설▲위성적재장비의 연구및 개발시설▲안테나 연구개발설비등 5개부문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東京=聯】

武術익힌다 家出 ★中共 철부지10代들에 골치

중공에서는 최근 무술에 관심을갖는 10대가 점차늘어나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광명일보등 주요신문들은 무예를 익히기위해 학교와 가족을 버리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는 10대철부지들이 늘어만 가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중에는 부모돈까지 챙겨가는 경우도 없지않다고 개탄。

신문들은 이들 철부지들이 무술영화에서 본 칼과 봉을 쓰는법을 익히기를 원하고있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이 나라에서 흥행에 대성공한「小林寺」란 영화가 젊은이들의 가슴을 부풀대로 부풀게 만들었다고 지적。【北京=AP】

美、衛星요격武器 개발

宇宙정책「레이건 指示각서」발표

◇베이루트大學 포격하는 이스라엘 탱크 4일 베이루트 공항부근의 팔레스타인 기지들에 대한 이스라엘 기갑부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동안 이스라엘 탱크 1대가 베이루트대학(왼쪽아래건물)주변을 포격하고있다。사진 윗부분은 아직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장악하고있는 西베이루트 시가。【베이루트 4日AP韓送=聯】

核공격대비 警報체제 空間평화보장등 포함

【워싱턴4日韓=聯】레이건미행정부는 4일 콜럼비아호의 귀환과 때를같이하여 인공위성요격무기개발을 포함、향후10년간의 미우주개발정책을 밝히는 대통령지시각서를 발표했다。

10개월간의 검토끝에 이날백악관에의해 공개된 이지시각서는▲인공위성요격무기체제개발▲장기우주체공▲핵공격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개발및유지▲우주탐사의 선도적 위치고수▲우주 공간의 평화보장을위한 국제적협력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도미니카 大統領 총격 死亡 深夜38口徑권총 誤發事故로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4日AP=聯】오는8월4년만기의 대통령직에서 자의로 물러나게될 안토니오·구스만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71)이 4일아침 자신이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의 오발사고로 숨졌다고 정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야코보·마줄타부통령(48)이 이날아침 취임식을 갖고 잠정적으로 대통령직을 맡게됐다고 말하고 마줄타부통령은 오는8월16일 예정대로 살바도르·호르헤·블랑코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했다。

이대변인은 구스만 대통령이 3일밤12시전 대통령집무실에서 그의 사위이며 비서관인 호세·마리아·헤르난데즈와 다른 한 보좌관과 있다가 화장실에 간후 곧 총성이 들렸으며 보좌관들이달려갔을때 오른쪽뺨에 총상을입고 쓰러져있었다고 말했다。

헤르난데즈는 구스만 대통령이 최근 호세·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8월4일 산토도밍고를 방문해주도록 초청했으며 후안·카를로스 스페인 대통령을 곧 방문할 예정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구스만대통령은 지난78년 선거에서 호아킨·발라구에르 당시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했고 이번에는 재출마를 포기、자의로 권력을 내놓은 첫지도자가 되었다。

被爆2만·死亡1만명 나가사끼原爆 한국人피해

【東京4日=聯】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징용돼 나가사끼(長崎)원폭투하로 사망한 한국인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나가사끼한국인 피폭자실태조사보고서가 이달말 일본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나가사끼재일한국인인권수호회(회장 岡正)가 지난해 7월부터 나가사끼원폭투하당시 이곳에살고 있던 54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4일 밝혀진 보고서내용에의하면 나가사끼에서 원폭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2만명으로 이중 최소한 1만명이상이 사망한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나가사끼한국인 원폭피폭자수는 당초 나가사끼시가 발표했던 한국인피해자 1만3천명、사망자 1천4백~2천명을 크게 웃도는것으로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직접 지휘했던 오까마사(岡正)씨는 시당국의 조사가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서 여자 挺身隊로 강제 동원돼왔던 여학생3백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당한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히고 이밖에 4백50~6백명의 한국인이 한꺼번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시설들도 많이 밝혀냈다고 말했다。

나가사끼在日한국인인권수호회의 오까마사회장은 나가사끼시가 한국인 피폭자수를 당초추계보다 훨씬 적게발표한데 자극、이같은 민간차원의 실태보고서를 별도로 마련하게된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계속 일본에서 강제 연행피폭·차별대우의 3重苦속에서 시달려온 한국인에대한 조사를 계속、정확한 한국인피해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海外토픽

宇宙船통화 엿들어 ★美전신회사서 고안

미국의 롱·라인즈 전신·전화회사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인우주왕복선콜럼비아호의 조종사와 지상관제소사이의 대화를 엿들을수있는 특별 전화번호를 고안、1백만달러(한화 약7억원)를 벌었다。

이 회사는 이같은 묘안으로 지금까지 82만3천회의전화통화를 접수、무려 약1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 전화번호는 8천명이동시에 사용할수 있으며조종사와 관제소사이에 대화가 없을때는 10초마다 발신음이 떨어진다。【베드민스터(미뉴저지州)=UPI】

「救世主」가 人質劇 ★夫人의 銃에맞아 숨져

『구세주』로 자칭해온 미국의 한광신자가 3일 부인과함께 아칸소주 재스퍼의 리틀·버펄로강다리위에서 버스승객들을 인질로잡고 TV회견을 요구하는등 2시간반동안 소란을피운후 부인이 쏜 총탄에 절명했으며 부인 또한 자살하고 말았다。

현지경찰에 따르면 자기자신을 구세주로 믿어온 키드·헤이글러라는 이름의 한종교적 광신자는 부인 케이트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중 차가 다리위를 달릴 무렵 운전수에게 정차를 명령、승객과 운전수등 18명을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TV회견을요구조건으로 내세운 인질극을 벌였다。

남편은 현장에 TV카메라진이 도착하자 인질전원을풀어준후 회견에 응하여 자기자신이 죽은후 3일만에 부활하여 구세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장담、버스에서내려 경찰과 잠시 대치하다가 결의 부인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으며 부인 또한 자살했다。【재스퍼=AP】

敎皇廳에 보상요구 ☆敎皇訪英기념품 在庫쌓여

요한·바오로2세교황의 영국방문 기념품 제조회사들은 지난5월 교황이 영국을 방문한뒤 2백만달러어치의 재고가 남아있다면서 교황청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있다。【런던=聯】

對話不應 입장固守 北傀신문 방송報道

【서울=聯】北傀의 신문、방송등 선전기관들은 7·4 南北共同聲明10周에 즈음、그동안 南北대화를 對南赤化를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던 그들의 企圖가 좌절되자 어를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對話중단의 책임을 賊反荷杖적으로 韓美양측에 상투적으로 전가하기에 급급하면서 統一을 위해서는 駐韓美軍철수가 先行되어야하며 통일은 金日成이 내놓은 소위「高麗聯邦案」에 의해서만 이뤄져야한다는 黨의 주장만을 나열、한국측의 성의와 인내를 다한 對話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不應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드러냈다。

메아리

앞으로 큼직큼직한 국제적인 규모의행사를 자주 치러야 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도 잦게될 형편에서 심심찮게 듣는것이 술타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술타령이란 한잔 거나해서 드러놓게 되는 술주정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우리것으로 내세울만한 나라의 술이 꼭 있어야 겠다는 푸념인 것이다。

술을 즐기는 호주가나 애주가는 말할나위없고 밀밭에만 가도 취한다는 사람들처럼 술을 전혀 거들떠 보지 않은 인사라 하여도 어떤 종류의술을 대하거나 보게 되면 그술이 빚어진 나라를 연상하게 된다。

이를테면 맥주라 하면 독일을 연상하고 포도주 하면 프랑스를、그리고 위스키하면 영국인데 한국하면 막걸리가 떠오른다。

도시와 농어촌을 가릴것없이 가장 많은 주당들로부터 사랑받는술이 막걸리임은 분명하다。하지만 과연 막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 할수 있을것인가에는 이론의 여지도 있을듯하다。막걸리와 함께 어느 모로는 막걸리보다 더 맛이 진하며 품위를 갖춘 고유한 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우리銘酒

여기서 각지방의 향기높은 명주들을 하나하나 일컬을 겨를은 없거니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 당진의 두견주만 해도 외국인에게 내놓기는 막걸리보다 좀 나은편이 아닌가 싶다。한데 문화공보부산하 문화재보호협회가 주로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해볼 생각으로 운영하는「한국의 집」에서 고유의 술로 두견주를 빚어 음미케 하려해도 법조문에 막혀 꼼짝달싹을 못하는 지경이다。

국세청에다 두견주 양조및 판매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공부서 청했더니『현행주세법상 용인될수 없으며 단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은 될수 있음』이라는 회시를 했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두견주를 빚어서 팔수도 있을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자세히 새기면 두견주의 양조 판매는 법을 어기는 일이니 할수가없고 굳이 하겠으면 초법률적인 결정으로 해보라는 얘기다。결과적으로는 하지말라는 것과 다름이없다。

전통적인 고유의 명주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인 여러 술들이 주세법때문에 전국에서 인멸에 직면하고 있는참이다。안타까운 나머지 취중아닌 진담으로 그 전승의 방도를 당국이 진지하게 고려해보도록 권하려는 것이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374>

피부가 노래지는 아기

생리적황달도 程度差 다양…심하면 交換輸血해야

한 어머니가 살갗, 눈의 흰동자 할것없이 온몸이 노랗게 변한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에 데리고 온 일이 있다。그러나 어머니는 갓난 아기들은 으레 좀 노란법이 아니냐며 태연해 있었다。단지 아기가 보채 데려왔다는 것이다。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의 경과가 불을 보듯이 환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않을수가 없었다。더구나 교환수혈이라는 치료를 해야했으므로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자세한 설명이 불가피했다。어린아기가 심한 황달에 빠지면 뇌조직이 망가져 살아나도 제구실을 할수없는경우가 많기때문이다。너무 늦었지만 원한다면 교환수혈을 할수있다고 했다。늦었지만 교환수혈을 해달라는 청에따라 교환수혈을 해주었다。그뒤 아기가 두살이 넘기까지 병원에 다녔기때문에 자세한 경과를 알수 있었다。처음에 예측했던대로 아기는 돌이 지나도 목을 가눌수가 없었다。

치아는 노랗게 변질되어 모두 부서졌고 팔과 다리는 제각기 뻗친상태로 굳어져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상태였다。생리적황달이라고해서 갓난아기의 피부가 생후 2~4일께부터 노란빛을 띠기 시작해서 7~14일쯤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퍽많이있다。이것은 아기의 간장이 미숙하기때문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생리적인 현상인것이다。이런 현상은 너무 흔히 나타나기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서 얼마동안은 으레 노란것이란 관념을 갖게되는 것같다。그런데 이처럼 경한황달이 아닌 중한 황달까지도 저절로 없어지는 생리적황달로 오인하는데 문제가있다。우리나라는 산모나 갓난아기를 좀 어둠컴컴한방에 놓아두는 습관이 있다。이런 어둔방이나 전등불 밑에서는 황달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구별할수 없게마련이다。전문의들조차 밝은 햇볕아래서 관찰하기 전에는 그 정도를 알수가 없는것이다。

갓난아기에서 황달이 어느정도이상 심해지면 이 노란색소가 뇌로 들어가 뇌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뒤에 뇌성마비라는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게된다。이를 핵황달이라하는데 일단 이런상태가 된뒤에는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것이다。따라서 이처럼 되기전에피를 갈아넣어주는 교환수혈을 해주면뇌성마비를 완전히 막을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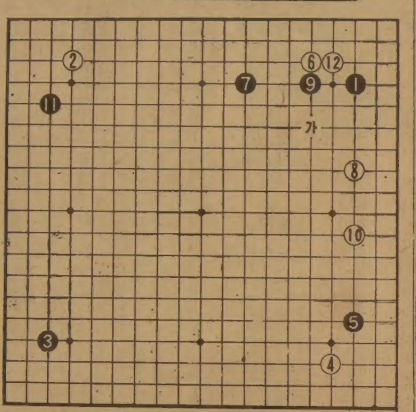
이런 핵황달은 생후 7일、늦어도 10일 이전에 발생되므로 교환수혈은 훨씬 일찍 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어쨌든 황달은 일찍 발견해서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한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된다。

李琦寧 【醫博·延世大의대 소아과교수】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第1譜(1~12)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徐奉洙〈2敗〉
黑(名人)曺薰鉉〈2勝〉



曺·徐는 한국바둑계의 쌍두마차。항상 저앞쪽을 달리며 단둘이서 혈전을 벌이고 있다。신문바둑만도 도전대국은 거의 둘이서 두는형편으로 1년에는 40국、월평균 3국은 치러야한다。

특히 이번처럼 두개의 타이틀전이 겹쳤을때는 3、4일걸러 한판씩、이쪽 저쪽을 번갈아 두어야 한다。이래서는 첫째 피로가겹쳐 견디기 어렵겠고 바둑자체에「지겨운」마음도 들것같은데 정작 본인들은 지칠줄모르는 투지와 체력으로 언제나 불꽃튀기는 접전이다。만천하 팬들이 여전히 열광하는 所以然이라 하겠다。

興亡이 걸린 한판

다만 문제되는것은 徐가 名人戰과 王位戰을 모두 막판에 몰린 위기에처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曺의 천하재통일과 徐의 결사저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바둑、제3국은 名人의 黑차례로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두어졌다。그리고 오늘은 연일계속되는 무더위를 잊으려는듯、굉장히 빠른속도로 두어가서 白12까지 불과10분밖에 걸리지않았다。하지만 물론 어느점이건 예사롭게 두어진것은 아니다。

우선 黑5。덤이없는 바둑이면 6자리를 굳혀서 충분하고 다음 白6에서 8은 평범하게「가」로 뛰어나가도 무방하지만 상대의 의도를피하려는 취향이며 우변의 白10은 일단 黑11을 외해본것이다。그리고 黑11과 白12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九】

「금지된 武器」 細裂彈 시비

이、레바논攻擊때 사용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의 독가스사용이 말썽이 됐듯이 레바논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금지된 무기」를 썼다해서 논란대상이되고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근교를 공략할때 사용한것으로전해진 무기의 하나는 무차별살상용細裂彈。

PLO측은 이 폭탄투하로 인해 주로 민간인 2천여명이 사망했다고주장、레이건 美대통령에게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 PLO게릴라들이 이스라엘정규군과 맞서싸우는 레바논전쟁의 독특한 성격상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오게 마련이지만 이스라엘자신도 이폭탄사용을 시인하고있어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돼있다。

이스라엘은 세열탄사용으로 공급국인 미국과의 약속도 깬것으로 알려졌다。

인 사이드

인마살상용인 CBU58과 對戰車用인 MK20 일명「호크아이」등 2종류를 이스라엘에 제공한 미국은 이스라엘에 세열탄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이「동시에 2개국 이상의 아랍국들과의 교전」에 직면하지않는한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78년에 체결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열탄은 피폭범위가 워낙 넓어서 군사적 작전목표외에도 민간인의 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母體폭탄속「아기폭탄」수백개 PLO "민간인2千死亡" 주장

美와 78년協約… 약속어기고 投下

이스라엘은 현재 PLO및 시리아와 교전상태에 있으나 국가아닌 비정규 군사조직인 PLO를 이경우에만은「국가」로 간주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사용한 세열탄은 集束彈이라고도 불리는 신형폭탄으로 폭탄속에 야구공크기의 폭탄등을 수백개 지니고 있는 폭탄을 이루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폭탄이 투하되면 일정시간이 지나거나(타이머式) 지상레이다의 전파를 포착하면(레이다감응式) 폭탄앞부분의 뇌관이 폭발한다(그림①)。

뇌관이 폭발하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세열탄의 母體가 조개껍질처럼 上下로 열리면서 속에 들어있는「아기폭탄」들이 바깥으로 쏟아져나온다(그림②)。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인마살상용 세열탄인 CBU58은 골프공보다 조금 큰「아기폭탄」6백50개를 지니고있다。

이스라엘은 이밖에도「아기폭탄」2백47개가 장치된 對戰車用 MK20「호크아이」彈도 보유하고 있다。

세열탄의「아기폭탄」들은 母體에서 뛰쳐나온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하면서 직경 1백20m가량의 범위까지 쏟아져 내려오면서 人畜살상은 물론 승용차 트럭등 차량과 레이다기지등을 무력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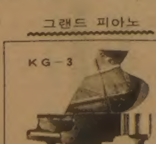
레바논전쟁에서는 대전차용 MK20은 사용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朴永喆기자】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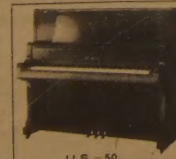
802-M

802-1


KG-3

GS-30

KS-3F


US-50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여름철특별대매출

BONTEMPI이태리안 올갠

$99.00

$39.95

$799.00

$399.00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륫,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장마조차「遲刻」

中旬까지는 큰비 없다

◇한방울이라도 전국이 목타고 있으나 장마소식은 감감하다. 비를 기다리다 못한 농부들이 2㎞나 떨어진 榮山湖의 물을 퍼어올리고 있다. 【錦城=聯】

韓半島주변 계속 高氣壓圈

30度 무더위속 곳곳 代播도

심은 벼마저말라 소나기라도 苦待

혹심한 가뭄이 모내기철을 지나도록 전국에걸쳐 계속되고 있는데 기다리는 장마전선은 지각할 전망이다. 漢拏山의 白鹿潭까지 — 고갈시킨 가뭄은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것으로 일부지역에선 이번주말까지 비가오지않을 경우 대파를 해야할 형편이다.

지방도시에서는 식수난까지 겪고있으며 또 서울변두리 지역에서는 괴질까지 번졌다.

중앙기상대는 5일 당초7월초로 예상했던 장마전선의 형성이 이날현재 중국의 華南지방에 뚜렷이 나타나지않아 이달중순까지는 충분한비가 내릴전망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기상대는 6일 일본오끼나와 해상에 형성돼 있는 기압골의영향으로 6일중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약간의비가내리고 10일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것같다고 예보했는데 본격적인 장마비가아니어서 전국적인 해갈에는미치지 못할것 같다.

한편 약한기압골의 영향으로 5일상오 濟州道가 강우권에들어 西歸浦에 2·5㎜의 강우량을 보였다.

중앙기상대는 또 일본동쪽에 팽창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주에는 30도대의 높은 기온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예년같으면 7월초순께 중국揚子江 유역에 저기압이형성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장마전선을 형성, 북상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강력한 오호츠크해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및 시베리아고기압등 강력한 고기압이 버티고있어 장마전선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것.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모내기 실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난 4일 현재 3만2천여정보가 모를 내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가뭄피해가 가장 심한지역은 경·남북및 전남으로 심어놓은벼마저 말라가고 있다.

농수산부는 15일께 장마비가 내릴것이라는 기상대예보에 따라 15일까지 모내기를마친다는 계획을세우고 있는데 예상대로 15일까지 비가안내릴경우 감자등을 대파할계획을 세워놓고있다.

腸티푸스증세 怪疾

한동네9명…1명죽고 5명入院

서울水西洞

서울 변두리지역 한동네에서 9명이 장티푸스증세의 괴질을 앓다가 1명이숨지고 5명이 입원치료를받고있다.

지난2일 낮12시께 서울江南區水西洞415 黃慶順씨(35·여·아파트청소원)가 고열과 설사·구토증세를보이다 숨지고 黃씨의 장남 金在憲군(9) 장녀 美善양(4)、이웃에사는 黃씨의 동생黃慶淑씨(33)와 장남 운영군(10)、이집에 세들어 사는 李富禮씨(79·여)등 5명이 같은증세로 발병, 서울시립西大門병원에 격리입원, 치료중이다.

이밖에 黃慶淑씨의 장녀 영주양(8)2녀 영애양(2)과 이씨집에 세들어사는 姜熙德씨(42)의 장남 東洙군(10)등 3명도 1주일전같은 증세로 앓아 치료를 받았었다.

서울시측은 이마을 일대에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 국립보건원에 검정을 의뢰했다.

집단 괴질이 발생한 水西洞 마을은 26세대가 모여사는 농촌부락으로 간이수도와 공동우물 4개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있는데 지난3월부터 심한가뭄으로 간이수도는 물이나오지않아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있다.

그런데 이우물은 마을 복판에있는 쓰레기장, 재래식화장실및 생활오수등 때문에 오염된것으로 보인다.

丁淳喆에 5년6월

서울刑事지법 宣告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는 5일 光州미국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丁淳喆피고인(2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집단소방법·계엄법·총포화약류단속법등 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朴溶東피고인(30·高大정외과제적)에게는 계엄법·밀항단속법등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도피중인 丁피고인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丁淳烈(31) 金奉鎬피고인(35·원불교중앙본부 榮山출장소사무장) 등 2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丁·朴등 두피고인은 光州미문화원방화와 高大학생데모등 사건과 관련 숨어지내다가 지난1월16일 전남高興에서 함께 日本으로 밀항하려다가 적발, 달아난뒤 釜山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터짐으로써 용의자로 다시지명수배돼 지난3월 검거됐었다.

法務部 出入國관리所長부인 連行

美貨 34萬弗事件

5백萬弗(TC) 사들여

미화34만불 밀반출 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南部지청은 4일 환전브로커 金璋燮씨(31·구속중) 등을시켜 지난4월부터 2개월간 6백20만달러 여행자수표(TC)를 환전해간 암달러상조직중 한사람으로 법무부모지역출입국관리소장 丁모씨(45·서기관)의 부인 Y모씨(43)의 신병을 확보, 자금출처등을 캐고있다.

검찰에 의하면 Y씨는 수배중인 東英玉씨(53)、구속중인 金龍五씨(54)등 암달러상7~8명과 함께 金璋燮으로부터 TC를 사들여왔는데 Y씨는 이가운데 80%가량인 5백여만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사건배후에있는 국제밀수조직은 금괴외에도 다량의 다이어먼드를 밀수해왔으며 이과정에서 일본인 나까무라(中村·47·후꾸오카市거주)도 깊이관련된것으로 밝혀냈는데 나까무라씨는 하야마씨와 같은건물의 3층에세들어 무역업간판을 내걸고 한국에 자주왕래해왔고 이사건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KAL편으로 출국했다.

國校生3명 멱감다溺死

兄山江서 수영 잘 못해

【浦項·光州】4일낮12시50분께 경북迎日郡延日邑 柳江동앞 兄山江에서 멱감던 李성훈씨(38·延日邑宅前2洞380)의 장남 상제군(9)과 이마을 李범희씨(37)의 장남 기영군(9) 최기원씨(48·延日邑槐亭洞54)의장남 창남군(9)등 延日국교 3년생 3명이 깊이3m가량의 강물에빠져 모두숨졌다.

또 이날 하오4시께 전남和順郡南面節山2區青石江유원지에서 가족과함께 물놀이나왔던 光州무등중 2년 陳俊浩군(13·光州市北區斗岩洞 斗岩아파트11동403)이 멱감다 심장마비로숨졌다. 【聯】

留學生 弗貨숨겨

出國하려다 잡혀

4일 하오8시50분께 金浦국제공항 2층 출국검사장에서 韓규연군(25·LA시티대학3년)이 미화 4만2천2백80달러를 숨겨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에 의하면 韓군은 달러를 조금씩 나누어 여행가방속의 양말, 옷, 구두속등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前스웨덴領事 金星應씨

아파트서 墜落숨져

3일하오9시45분께서울江南區大峙洞316은마아파트23동 12층난간에서 스웨덴영사를지낸 金星應씨(46·무직·서울東大門區里門2洞264의370)가 떨어져숨졌다.

가족들에의하면 金씨는 5천만원의 빚이있는데다 최근 경기安養市 명학공단내의 현대합성공업을인수하기로하고 지난3월말 계약금 1천5백만원을 지불했으나 잔금5천여만원을 구하지못해 비관해왔다는것.

釜山美文化院사건 4회公判

崔基植신부 是認

金鉉奬 光州사태관련 알았다

放火개입은 否認해 自首권고

【釜山=崔鎬植기자】부산미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에대한 제4회 공판이 5일상오10시 부산지법 제1호법정에서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심리로열려 崔基植신부(39)、金鉉奬(32)、金英愛(25·原州치악산서점주인)文吉煥(36·原州교육원관리인)李昌馥(43·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朴貞美(22·부산여대4년)피고인등에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공판을 끝으로 다음공판부터는 변호인반대신문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崔신부는 『金鉉奬피고인이 80년5월초께 찾아왔을때부터 大田교구 俞鋼勳씨가 써준 소개장 내용으로보아 光州사태에 관련돼 도피중인것으로 알고있었다』고 검찰공소사실중 범인은닉부분을 시인했다.

그러나 崔신부는『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82년3월18일)이 발생했을때 金鉉奬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돼있다는것을 즉시 안것은 아니며 3월20일 교육원관리인 文씨를 통해 50만원을 전해준것도 2년가까이 같이있던 사람이 떠난다기에 준것일뿐 방화사건 관련자의 도피자금으로 준것은 아니었다』고진술,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부분에 대해서는부인했다.

崔신부는 ▲金피고인이 3월18일 밤늦게 술에취해찾아와『나는 감옥에가기를 싫어하는데 후배들이 감옥가게됐다』고 울며이는것을듣고 光州사태등으로 고민이많아 술주정하는 것만으로 알았고▲3월22일에야『신부님 그분 곁으로 가겠읍니다』고 쓴 유서를 발견하고 金이 머리가 돈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과함께 부산사건과 관련돼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을가졌으나 ▲4월1일 文富軾과 金恩淑이 연행될때와 다음날인2일 金자신이 연행될때 부산사건과의 관련여부를 물었으나 극구부인해 가벼운 마음으로 자수시킨것이라고 진술했다.

崔신부는 4월2일 수사관이 찾아왔을때 金이 없다고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2년가까이 함께있던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을때 어떻게해야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했다.

崔신부는 학생들이 金으로부터받은『학습내용중에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로 이행돼야한다는 내용이있었다』는 검찰공소사실에 대해는 아는바없다고답변했다.

한편이날 공판에서 金鉉奬피고인은『文富軾등에게 유인물에 「북침준비완료」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라고 말한적이없다』고 진술, 1회공판때의 진술은 완전히 뒤엎었고 또文등에게 방화사건을 교사하거나 감시한적이 없다고 검찰공소사실을부인했다.

다음공판은 오는12일상오 10시.

崔신부일문일답

▲검찰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했는가.

—그렇다.

▲金鉉奬을 알게된 경위는

—80년5월초 어느날 저녁 大田교구 俞鋼勳씨가 써준 메모를 가지고 原州교구 사회개발위원회 직원 鄭仁幸씨와 함께 찾아와 그때부터 알게됐다.

▲池學淳주교에게 말한적이 있는가.

—없다.

▲金의 고향, 성장과정,구체적인 인생관, 사상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光州교구의 정영달신부에게 물었더니 잘안다고 하길래 더이상 알려고 하지안했다.

▲金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내방에와차한잔마시고가라고 해 몇번 만났을 뿐이지 자세한 이야기를 한적이없어 잘은 모르지만 강한 사람으로 느꼈다.

▲金으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은적이 있는가.

—자수하는날 연행직전 정식으로 한번 받았다.

▲金이 지난번 공판에서 죄진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다고 했는데.

—金의 속을 모르고 공적으로 이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있나. 평상시에 金은 나에게『나는 죄인이다. 하느님앞에 부끄럽다』고 얘기해왔다. 하느님앞에 죄없다는것과 이자리에서 죄없다고 한것은 다르다고 본다.

▲지난해 12월중순께 金의 文富軾등을 교육시킬때 참석해 의식화에대해 이야기했다는데.

—지나가는 말로 우리국민들이 의식을하려면 긴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적이있다.

▲金鉉奬이 사회문제해결을위해 폭력혁명을 주장한적이있는가.

—폭력이란 말을 들어본적은없고 강한 성격이므로 저변에 깔려있는것으로 느낀적은있다.

▲학생들의 의식화교육에 대해 알고있었는가. 지난해 여름 全州학생들이 왔을때도 들렸다는데.

—학생들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것으로 알았다. 全州학생들은 먼데서 왔기때문에 내려가기 전날 들려 불편한게 없었느냐고 물은적은 있다. 교재내용도「우상과 이성」등 시중에서 파는 책들로 알고 있었다.

▲방화사건이 있던 82년3월18일 金이찾아와 술에취해『내잘못으로 후배들이 감옥에 가게됐다』고 했다는데

—내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나는 감옥가기를 싫어해 도피해 다니는데 후배들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말한것 같다.

▲3월18일 TV뉴스를 보고 부산방화사건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언제봤는지 기억이 없으나 본것만은 사실이다.

▲3월22일 金이 빌려갔던 한영사전 책갈피속에『영부이신 신부님 그 분곁으로 가겠읍니다』라고 쓴 金의 유서를 봤다는데

—그분이란 하느님으로 생각했다. 光州사태등의 충격으로 돈것이 아닌가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이때서야 金이방화사건과 관련된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졌다.

▲방화사건 다음날인 3월19일 교육원관리인 文吉煥씨를 불러 金에게 50만원을 주게했다는데.

—文씨가 金이 어젯밤 술주정한 내용으로봐 어디론가 갈지모르겠다고해 간다면 보내주라고 했을뿐 돈을 얼마주라고 한적은 없다.

▲3월30일 서울에 올라와 咸世雄신부를 만나 무슨이야기를 했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신은 있겠으나 북침준비완료등의 문구가 문제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

▲북침준비완료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나.

—무겁게 생각해본적 없다. 젊은애들이라 생각이 못미쳐 아무말이나 불쑥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3월31일 文富軾등이 자수직전 무슨이야기를 나누었나.

—시시한 이야기와 농담을 주고 받았다.

▲자수직전인데도 그럴수있나.

—나도 놀랐다. 젊은애들이 떳떳했고 마음의 동요없이 경쾌한 표정들이었다.

▲방화가 옳은일이라고 생각하나.

—판단을 말하면 방화사건자체는 좋은일이 아니라고생각한다.

▲범인은닉은 실정법 위반인 사실을 아는가.

—알고 있다.

◇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 4회공판이 열린 釜山地法법정으로 崔基植신부가 들어가고있다. 【釜山=聯】

曺名人 타이틀防禦

4局서 徐奉洙7단에 不計勝

【浦項=梁平기자】曺薰鉉名人은 3일 포항제철 영빈관에서 열린 第13기名人戰(한국일보주최) 도전5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徐奉洙7단에게 2백32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3대1로 타이틀을방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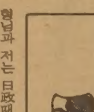
포항제철기우회(회장 朴得約관리이사의 초청으로열린 이날대국에서 백을쥔 曺名人은 초반 徐7단의 실리바둑에 고전했으나 상변싸움에서 흑이 161의 허패를 쓰자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흑은 종반 맹추격을 벌였으나 백은 초읽기에 쫓기면서도 침착하게 중앙·대국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白은 4시간57분, 黑은 4시간35분을 사용했다.

「社會의 無期囚」

16년전 검은손 씻은 왕초의 그후



"人間재생… 兄님을 소개합니다"

本欄(달바가지란) 담당자 앞으로 이색적인 편지가 날아들었다. 매춘과 함께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검은직업의 하나라는 소매치기 세계에서 손을 씻게된 어느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혼자만 알고 있을수 없어 신문사에 알린다』는 서신의내용을 전재한다. 소매치기생활 30년을 청산하고장사를 해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제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옛날 「왕초」형님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형님이 소매치기 아니고는 삶재미를 못느꼈던 저를 범죄의 소굴에서 구해줬거던요.

형님과 저는 日政때부터 전국을 누비며 남의포킷을 털었읍니다. 그러나 지난66년5월 자수기간에 형님과 우리 일당14명이 뜻한바있어 서울시경에 자수했읍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나니 모두 허사였어요. 자수자 모두가 재범을 했고 교도소에서 여러차례 다시만나는 신세가 됐지요. 저 역시 7번째 교도소에 갔다가 지난해9월 마지막으로 교도소문을 나왔읍니다. 그러나 형님만은 달랐어요. 자수한후 16년동안을 경범한번 걸리지 않았읍니다. 깨끗이 손을 씻은거지요.

장사에 두번실패하고 전세방에서 사글세로 전전하면서도 무던히 참았더군요.

제가 지난9월 출감했을때 살길이 막막해 다시 10여명을 끌어모아 작당을했지요. 그러나 용돈을 마련해서 형님을 찾았읍니다. 『형님 이 돈으로 전세방얻고 한바퀴 돕시다. 이 고생을 왜합니까』

형님은 우리를 죽 둘러보며 잔잔히 웃더군요. 그리고 입을열었읍니다. 『야, 우리가 사회에있다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사회의 무기수(無期囚)다. 사회를 교도소로생각하고 열심히살면 날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질것이다』

순간 도가 트인 사람같아 무섭더군요.

형님은 과묵하면서도 착오 없이 행동하는 왕초였지요. 그세계의 속성이긴 합니다만 의리의 사내였지요. 『한손엔 황금, 한손은 철권』으로 마음만 돌리면 소매치기 세계에서 제왕의 자리에 오를수있는 그런사람이 오늘도 공사판에서 비지땀을 흘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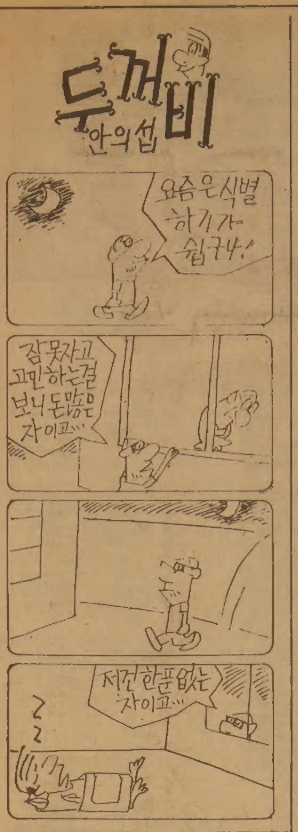
지난 5월에도 옛「친구」가 출감해 오갈데없이 시장바닥을 배회하는걸 보더니 중고리어카를 사주고 장사를 시키는데는 고개를 숙이지않을수없었읍니다.

형님은 옛날에는 악의 의리로 살았지만 오늘은 선의 의리로 사회에 공헌하고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렇다고 형님을 찾지는 말아주십시오』과거가 탄로나 공사장에서 쫓겨날까 겁이나서 그럽니다』

【김태봉씨=서울城北區長位洞2의174】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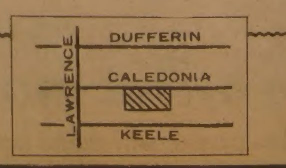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에 한함

June 28 - July 10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75 per box
Buy a Case (12)		2.65 per box
Y & S Twizzlers	24x40	6.39
Vicks Prepack	6x20x40	29.55
Tootsie Pop Top	50x10	2.40
Sweet Tarts	48x10	3.16
Giant Tarts	36x10	2.37
Dare Peg Top Candy	12x1.39	9.80
Allen's Big Foot	100x.5	2.89
Allen's Ribbons	48x10	2.89
Allen's Laces	60x.5	1.79
Taveners Tin Candy	1x1.95	1.19
Life Saver Bubble Yum (orange only)	18x30	3.09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프랑스!

24년만에 4強진출

펠레도 베켄바우어도 豫想못했다

"最善의 공격은 最善의 수비"

4·4·2布陣…門前突進파워

秘藏의 무기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예상을 뒤엎고 스페인 월드컵축구4강전에 진출, 화제를 일으키고있다.

특히 유럽축구무대에서 두각을 보이지못했던 프랑스의 4강도약을 펠레나 베켄바우어도 예상하지못했던 이변이었다.

프랑스는 1904년 국제축구연맹(FIFA)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첫회를 파리에서 개최했고 줄·리메씨가 최초의 월드컵을 기증했지만 국제무대에서 각광을 받은것은 1958년 스웨덴월드컵때 3위를 차지했을때 였다. 그때로부터 24년, 프랑스는 오랜만에 유럽축구의 강호로 발돋움한것이다.

프랑스는 1차리그 4조서 체코와 쿠웨이트를 제치고 잉글랜드에 이어 2위로 2차리그에 올라왔으며, 2차리그서는 오스트리아에 1-0, 북아일랜드에 4-1로 승리하여 준결승진출권을 획득한것이다.

프랑스가 스페인에서 돌풍을 일으킨것은 미셸·이달고감독이 머리를 짜낸 4-4-2 시스팀의 개가 였다.

주장인 미셸·플라티니를 비롯, 알랭·지레스, 베르나르·장기니, 장·티가나로 이루어진 미드필드는 철벽이었고 최전방공격수 제라르·솔레(디디에)와 도미니크·로슈토도 중요한 고비마다 득점을 올렸다.

프랑스가 어떻게해서 강해졌을까. 스페인월드컵을 취재중인 프랑스기자들은 『이달고감독이 피나는 노력끝에 이루어놓은 작품』이라고 말하고있다.

공격적인 축구의 신봉자인 이달고는 우선 스페인월드컵의 요건과 부합된 팀을 구성했다.

原則준수·피땀努力
이달고監督의 作品

그는 지난해11월 월드컵본선진출을 놓고 네덜란드와의 결정적인 한판경기에서도 수비적인 경기운영을 탈피했다.

최전방 포워드3명과 공격형 미드필더3명을 배치, 월드컵에서 두번이나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던 강호네덜란드를 2-0으로 침몰시킨것이다. 76년11월1일 루마니아인 스테판·코바스의 후계자로 프랑스대표팀을 맡은 미셸·이달고의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78년 아르헨티나월드컵 진출. 프랑스로서는 12년만의 쾌거였다.

어려운때일수록 원칙에 투철했던 이달고는 기술과 활력을 위주로하여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팀을 만들었다. 최근 몇달동안 이달고는 팀의수준을 높이기위해 선수들을자주 바꾸었지만 결국 아르헨티나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주축으로했다.

철벽같은 수비진. 제라르·장비옹과 마리우스·트레조르, 막스·보시등이 각자위치에서 국제경기를통해 팀웍을다지고 호흡을 맞추었다. 또 프랑스 대표팀의 전통을 살려 미드필드를 강하게만들었다. 수비보다 공격에 총집중하는 형태였다. 프리킥의 명수이자 센터포워드 미셸·플라티니와 알랭·지레스, 장·티가나, 베르나르·장기니등의 공격력은 날이갈수록 위력을 더했다.

특히 전진 돌파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도미니크·로슈토, 제라르·솔레(디디에)등도 더욱 공격적으로 다듬어졌다.

이달고가 이끈는 프랑스팀은 최근 수년동안 기교적인 경기, 공격적인축구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行進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두고 보아야하겠지만 이달고는 최선의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수비라는 신념으로 월드컵에 도전하고 있다. 【安奉煥기자】

◇프랑스主將 플라티니 프랑스팀의 주장인 HB미셸·플라티니㊨。다리부상을 무릅쓰고 2차리그 對북아일랜드전에 출전, 활약했다.

폴란드도 準決에 합류

蘇와 0대0비겼으나 골 得失差로

佛지레스 2골…北아일랜드 4대1大破

【마드리드4日外電=綜合】유럽의 복병 프랑스와 폴란드가 제12회 스페인월드컵축구대회에서 4강이 겨루는 준결승에 선착했다.

프랑스는 5일새벽(한국시간) 마드리드의 마지막 경기에서 北아일랜드를 4-1로격파하고 2차리그 2전전승으로 4강진출권을따냈다.

폴란드도 이날 바르셀로나의 누캄프 경기장에서 벌어진 2차리그A조 소련과의 대전에서 0-0으로 비겼으나 골득실차에서 2점이 앞서 소련을 따돌리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78년에 이어 월드컵본선에 진출한 프랑스는 이날 北아일랜드를 맞아 전반34분 알랭·지레스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뒤 후반2분과 24분에 도미니크·로슈토가 연속 2골을넣고 36분에 지레스가 다시 골을넣어 대승했다.

프랑스는 9일 B조의 서독 또는 잉글랜드와 준결승전서 격돌한다.

폴란드는 골게터인 보니에크가 전반종료5분전 소련선수에 반칙을 범해 스코틀랜드 주심으로부터 경고를받아 준결승전 출전이 정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됐다.

◇2차리그전적 (5일)

▲D조

프랑스 4 (1-0 / 3-1) 1 北아일랜드
(2승) (1무1패)

▲A조

폴란드 0 (0-0 / 0-0) 0 소련
(1승1무) (1승1무)

한국女子 우승
全美탁구 個人복식

한국은 4일 美國디트로이트에서 폐막된 제52회全美오픈탁구대회여자개인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申得花·鄭庚子조는 여자개인복식결승전서 日本의 가와히가시, 와다조를 맞아 첫세트를 17-21로 빼앗겼으나 이후 내리 3세트를 따내고 역전승했다.

星武朴承昊, 4게임 連續홈런
실업야구夏季리그…經理團 우승확정

朴承昊가 연속게임 홈런기록 도전에 나섰다.

星武4번 朴承昊는 5일서울운동장서벌어진 실업야구 하계리그 10일째 韓國化粧品과의대전서 2회초 선두타자로나와 韓化선발 金炳一의제2구를 오른쪽 담장으로 넘겨 4게임째 연속홈런을날렸다.

실업야구 최고기록은 金宇烈(第一銀行-OB베어즈)의 6게임 연속홈런. 그러나 2위를달리던 星武가 이날韓化와 난타전끝에 11-12로패배, 4승3패를 기록함으로써 5승1무의선두 經理團이 춘계리그에이어 하계리그서도 우승이확정되었다.

◇제10일전적

성무(4승3패) 031 011 230 — 11
한국화장품(3승3패) 030 310 50× — 12

▲홈런=朴承昊(2회·성) 李光國(5회·한화)

프로야구
金用熙 만루홈런
미스터 올스타賞

롯데 자인언츠의 강타자 金用熙가 4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올스타 3차전에서 7회말 행운의만루호머를 터뜨려 東部에 10-5의 승리를안겨주고 미스터·올스타의 영광을 차지했다.

2승1패로 東軍의 종합승리가 확정된가운데 진행된 시상식장은 최우수선수를 가리는 또 하나의 결전장이었다.

◇3차전

서 군(1승2패) 000 001 004 — 5
동 군(2승1패) 130 101 40× — 10

▲홈런=張泰洙(2회·이3점) 金用熙(7회·만루·이상동군)

◇개 인 상

▲수훈=張泰洙(동군) ▲승리투수=朴相悅(동군) ▲우수투수=鮮于大泳(동군) ▲타격=金一權(서군) ▲감투=梁承琯(서군) ▲미기=裵大雄(동군) ▲감독=金永德

스포츠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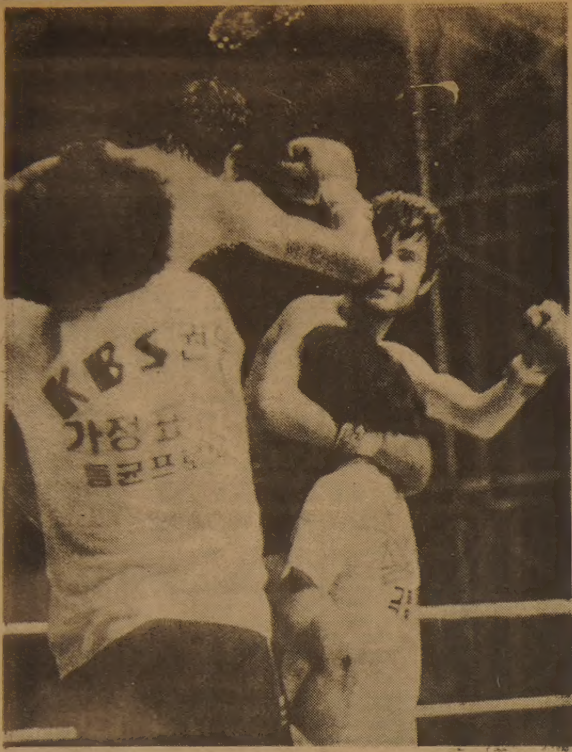
야구青龍새단장에 高處璜씨

◆…프로야구 MBC靑龍팀은 새단장에 高處璜씨(MBC심의위원)를 5일 임명했다.

창단때부터 단장을 맡았던 趙光植씨(스포츠담당부국장)는 야구단장직서 손을뗐다.

金喆鎬, 위험한 守備허점

발데스와 無勝負, 5防했지만… 主武器 왼손훅도 「不發·單發」만



◇서로"내가 이겼지" 경기가 끝난후 서로 『내가 이겼다』며 링을돌고있는 챔피언 金喆鎬㊧와 도전자 발데스。金은 고투끝에 무승부를기록 어렵게 타이틀 5차방어에 성공했다. 【大田=徐鍾道기자】

【大田=金仁會기자】프로복싱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21)는 4일저녁 大田충무체육관서 벌어진 라울·발데스(28·동급1위·멕시코)와의 타이틀매치서 고전끝에 무승부로 챔피언벨트를 지켰으나 석연치않은여운을 남겼다.

金은 朴贊希(WBC플라이급)가 갖고있던 세계타이틀 5차방어기록과 타이를이루고 롱런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6차방어전을 앞두고 몇가지 단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金의 가장큰 취약점은 수비에서 가드가 자주 내려가고 공격에서 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金은 발데스와의 경기서 라이트잽과 스트레이트를 많이 허용했고 근접전서도 안면에 짧은 펀치를 맞았다. 발데스의 펀치가 약하여 큰 대미지는 입지 않았지만 완벽한 수비 테크닉을 갖추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金은 주무기인 왼손훅을 거의 쓰지못했다. 간혹 왼손스트레이트와 훅을 적중시켰지만 連打가터지지않았고 헛손질이 많았다. 특히 왼손잽이 없이 바로 오른쪽스트레이트 또는 보디공격으로 이어져 큰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金은 3차방어전 이후 왼손을 많이 내밀어 효과를 보았는데 이날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발데스가 왼손잡이인데다가 홀딩과 몸놀림이 유연해 좀처럼正打를 맞히지못했다.

이날경기가 살얼음밟듯한 긴장속에서 15회까지 간것은 방어전일정의 잦은 변경으로 톱·컨디션을 유지하지못한데도 원인이있다. 金은 이날계체량에서 51.8kg으로 한계체중보다 3백60g이 미달됐다. 전날 저녁에는 스테이크까지 먹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KO승하리라던 당초의예상이 깨진것은 경기일정 차질로 정신및 육체적인 리듬이 흐트러졌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판정내용을 보면 코사·빌라마(멕시코) 안젤로·폴레티(이탈리아) 부심이 각각 145-145 무승부를, 한국의柳完洙부심은 148-146으로金의 승리로채점했다.

全대통령, 祝電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4일하오 WBC슈퍼플라이급타이틀을 방어한 金喆鎬선수에게 축전을보내 치하격려했다.

白仁鐵, 20KO연승
J미들級 멕시코 레이바 눕혀

한편 메인 이벤트에앞서벌어진 10회전 경기에서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주니어 미들급챔피언 白仁鐵(20)은 멕시코의 안토니오·레이바를 2회2분19초만에 KO로 물리쳐 20연속KO승의 국내최다 연속KO기록을 세웠다.

體育會 새會長 鄭周永씨
12일 대의원회 選出키로

◇鄭周永씨

대한체육회는 오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 吉相鎬회장의 후임으로 鄭周永 現代그룹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 체육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단및 집행부의 총사퇴를 결의하고, 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전임하는 吉相鎬 회장의 사퇴서를 수리했다.

신임회장으로 내정된 鄭周永씨는 서울올림픽유치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작년 9월 西獨바덴바덴 IOC총회때는 올림픽유치단의 일원으로 활약했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회장은 정계 또는 문화계중진급인사들이 추대됐었으나 경제인이 영입되는것은 鄭회장이 처음이다.

전국水泳 폐막
한국新8·대회新80개

제37회 전국수영대회가 한국신8개와 대회신80개를 내고 5일 서울운동장 수영장에서 폐막됐다. 첫날 4개의 한국신이 수립된데이어 4일에는 千仁泰(한국체대) 崔允庭(상명여고) 李始恩(상명여고) 등이 한국신4개를 추가했으며 대회마지막인 5일에는 한국신기록없이 대회신기록만 32개가 나왔다.

대회 첫날 여고 자유형 1백m에서 한국신을 세웠던崔允庭은 이틀째인 4일에도여고배영 1백m에서 두달전동생 崔允喜가 세웠던 1분06초47을 0.43초 단축한 1분06초0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며, 여고 자유형 2백m서도 자신의 종전기록 2분14초79를 깨 기염을 토했다.

한편 여고자유형 4백m서 한국신을 세웠던 李始恩도 자유형 8백m에서 9분23초17로 한국신기록을 세워 자유형 4백m와 8백m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한국신기록(4일)

▲남대평영1백m=千仁泰(한국체대) 1분09초08(종전 1분09초63) ▲여고배영1백m=崔允庭(상명여고) 1분06초30(종전 1분06초47) ▲여고자유형2백m=崔允庭(상명여고) 2분12초72(종전 2분14초79) ▲여고자유형8백m=李始恩(상명여고) 9분23초17(종전 9분24초52)

◇"화성인의 모습…이렇습니다" 지난주 유니버설영화사가 새로제작한 「The Thing」의 시사회때 한 가장관람객이 火星人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을 놀라게했다. 【할리우드=UPI】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5>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응 달 ㉟

오목이는 그런 모든 소리를 뿌리치듯이 도리머리를 흔들고 몸을 날려 들입다 달음박질치기 시작했다. 달리는 서슬엔지 세찬 바람결엔지 늘 차고다니던 은표주박 목걸이가 휘날려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실로 오랜만에 은표주박을만지작거려 봤다.

무슨 생각인지 날듯 날듯했다. 막막한 이별과 관계있는 어떤장면이 장소가 분명치않은 가려움증처럼 그녀의 기억력을 안타깝게 했다. 조금만 더,조금만 더 생각을집중시키면 그녀의 생애에 금을긋고 지나간 어떤 장면을 떠올릴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바쁜 몸이었다. 일환이가 기다리고 있는곳까지 제시간에 대가기도 바빴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빨리했다.

보일러나 펌프를 시공하는 점포와 공구상이 밀집한 상가의 뒷골목에 자리잡은 다방은 어딘지 모르게 기계기름에 전겨진처럼 거무튀튀하고 손님들도 우락부락해 보였다.

으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려니한 일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목이는 구석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불안을 지우려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꾸몄다.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할 것인가? 아주 간단히 죽어버리지 그까짓거 하고는 혼자서 피식 웃었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언덕배기에서 해진 깃발처럼 바람을 맞고 서있던 춘자의 모습도 떠올랐다. 어떠하든 잘 살아낼텐데, 이제부터 잘 살고 못살고는 자신에게보다 일환이에게 더 많이 달려있다는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일환이가 들어왔다. 일하다 온것처럼 깨끗치못한 모습이 도리어 그곳 분위기와 잘어울리고 오목이는 그런게 다 믿음직스러워 활짝웃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부터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리라 속으로 벼르면서 혼자서 얼굴을 붉혔다.

『일이 생각보다 까다로와서 아주 마무리까지 보고 오느라고…』

『고단하죠?』

오목이는 그의 전신에 쇳가루처럼 무겁게 얹힌 피곤을 툭툭 털어내주고싶은 충동을 겨우겨우 짓누르며 이렇게 물었다.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고공경하리라. 그녀는 그런 생각을 일환이를 위해서보다는자신을 위해 더 많이 했다. 그런생각을 할때마다 자신이양가집 규수가된 것같은 착각을할수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카운터쪽으로 손가락 두개를 펴보이며 코피 했다. 하나만 시키지않구요. 오목이가 종알대며 수줍게 웃었다.

『방 문제는 해결됐어. 끓여먹을 그릇하고 이부자리나 장만하면 되니까 서두를것 없어』

『그래요? 아이 좋아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됐어요?』

『탁 터놓고 장가 들었다고 말해버렸지 뭐。다들 좋아하더군。오목이가 마침 사장님 눈에 들었나봐。참한 색시같으니 꼭 데리고 살아야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봐주더군。마침 사장님 친구중에 지하실차고에 붙은 방을 안집을 봐준다는 조건이면 거저 빌려주겠다는 이가 있어서 얻은 잡았지 뭐』

『거저도 좋지만 지하실이면 들창도 없겠네요? 대낮에도 깜깜하구요?』

『지하실이라고 해서 땅속인줄 알아? 부자들은 차고나 창고 보일러실이 있는 곳을 통틀어 지하실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땅속도 아냐。그야 저네들 사는곳에서 보면 땅밑이겠지만 말야』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745-2058

한국관

연중무휴

○ 회의실 마련
○ 각종파티 환영
○ 저렴한 음식가격
※오전10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1-0277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 CHINA HOUS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425-565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신 용 대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이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병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Full Time Sales Person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으로 용모단정하고 영어회화에 능통한 Sales Oriented된 분을 환영함. (관심있으신분 직접 문의)

고려보석
Eaton Centre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Driver & Salesperson 구함.
★ Commission basis.
토론토에 있는 각 Variety Store에 Juice 판매하실 분.
약간의 영어 요구됨. 운전면허 있어야함. 트럭은 제공받음.
돈벌기에 전망이 밝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전화 : 482-4807

유경험자 Store Helper(남자) 구함.
Full Time. 전화 : 422-3121 (Mr. 권)

Becker Store Manager 구함.
당분간 맡아서 보아주실분(경험자 우대)
전화 : 924-7696 (Mr. Lee)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아이스크림 가게 Helper 구함 (유경험자)
Franchise도 가능함. 전화 : 752-4366 Mr. 박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동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현금)
전화 : 276-326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1) Dry Cleaning Pick Up Store
Weekly Turnover: $1,000, Asking Price: $35,000
3 year lease + 3 year option, Store + 4 Bed Rm.Apt.
May be leased or bought.
2) Donuts Shop
Weekly Turnover: $4,000, Asking Price: $135,000
$65,000 down, Rent: $2,000 5 year Lease + 3 year option
Mr. Ryu 762-8255
Royal Trust Real Estate Co.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Grocery Store — Private Franchise
Stock downpayment, S.W. of Toronto.
Best Offer. Phone: 259-2123 (이자예브)

Food Store 급매.
시간 짧고 수익성 좋은 가게를 급매코져 함.
주매상 : $12,500이상
2038 Queen S. E.
꼭 관심있으신 분 오후 3시이후·내방 바람.

Smoke Shop for Sale
년매상 : $325,000 (Eglinton & Caledonia)
전화 : 635-8405 (Vitale)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매매 (Building & Business)
(3 Bed Rm Apt. + 2 Bed Rm Apt.) 포함.
주매상: $7,500이상, 아스킹: $185,000 전화: 1-898-4326 (Mr.신)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Baskin & Robbins Ice Cream Store 매매
Franchise임. 리스 : 10년
전화 : 241-9593

Convenience Store for Sale
미시사가 Clarkson 지역
전화 : 822-2247 (Sa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큰 Shopping Centre안.
년 11만불 보장. 순이익 절반. 렌트: $650. 리스 갱신 가능.
영업시간: 월-수: 9시30-6시, 목-금.토 9시30-5시,
요구액: 3만불 + 스탁
연락처 : Montreal(514)-691-3704, 691-4751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for Sale.(Bloor & Christie)
주매상 : $4,000이상. Good Lease.
Tom. 534-7785 Cosmos Realty Co., Ltd.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Air Conditioner 급매. General Electric.
8,000 B.T.U. 2주 사용했던것 임.
$265. 전화 : 431-6882 (Mrs. Kim)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AMERICAN EXPRESS
크레딧·카드를 使用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Finch & Weston)
2 Bed Room Apt 같이 나눠 쓰실분.
고층 Apt. 전화 : 222-3877 (Miss Kim)

☎ :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한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의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이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알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춘탁

새한칼라현상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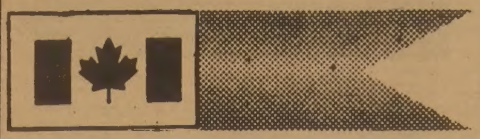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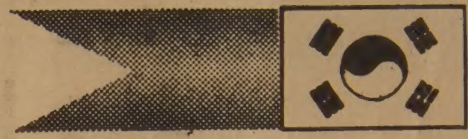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제2회 전캐나다 교민체육대회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이른 여름 귀하의 가정의 평강과 하시는 사업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에 이어 금년에도 8·15광복절 기념식과 제2회 전교민 체육대회를 개최코저하오니 많은 단체와 개인의 출전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8월14일(토요일) 오전8시30분
장　　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Centennial Park Dr. Etobicoke, Ontario
참가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마감 : 1982년 7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소정신청서 1통
접 수 처 : 1. 재캐나다 체육회 사무실 ☎ : 533-9336
454A 3rd Fl. Bloor St. West. Toronto, Ont.
2. 서울여행사 ☎ : 535-6004
631 Bloor St. West, Tor. Ont.
3. 무나미트로피 ☎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Scarborough, Ont.
4. Brandon Sports ☎ : 598-3732 337 Bloor St. West, Toronto, Ont.

※참고 : 주장회의를 8월7일(금요일) 본회 사무실에서 갖겠읍니다.

경기프로그램

시간	선수구분	경기 종류	경기 방법	경기구분	경기장	선수
11:00	유치원생	과자따먹기	25미터 달려가서 과자따먹기	개인	F	무제한
	중학생	100미터 경주		단체	T	4인조
11:30	국교생	공 바구니 넣기	2분간 바구니에 공던져넣기	단체	F	10인조
	고교생	100미터 경주		단체	T	4인조
12:00	대학생	100미터 경주		단체	T	4인조
	일반(부인)	공 굴리기	공을 굴려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 리레이	단체	F	10인조
12:30	노 년	통치기	25미터 지점의 통을 치고오는 리레이식	단체	F	10인조
13:00	일 반	단체축구 결승전	단체대항으로서 8월7일 예선전을 거침	단체	F	[illegible]
13:30	유치원생	바구니 터트리기	장대위의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F	10인조
14:00	국교생	200미터 리레이	한학생이 50미터씩 뜀	단체	T	4인조
	노 년	바늘 귀 끼기	25미터 달려가서 바늘귀 끼고오는 리레이	단체	F	10인조
14:30	중학생	400미터 리레이	한학생이 100미터씩 뜀	단체	T	4인조
	노 년	공 나르기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 리레이식 공나르기	단체	F	10인조
15:00	고교생	200미터 경주		개인	T	무제한
	일 반	줄다리기		단체	F	20인조
15:30	대학생	1500미터 경주		개인	T	무제한
	일 반	씨름		개인	F	무제한
16:30	유치원생	세발자전거 리레	한학생 100미터씩 리레이	단체	T	4인조
	중학생	장애물 경주	200미터 경주	단체	T	4인조
17:00	고교생	기마전	4명 한조로 3개조까지 출전할수 있음	단체	F	10인조
17:30	일 반	축구 결승전	체전파견 선발 결승전		F	무제한
18:30	일 반	마라톤	10키로 마라톤	개인	T	무제한
19:30			복권추첨			
20:30			폐 회			

명예대회장 : 이규현
대 회 장 : 이병권
부 대 회 장 : 원장호·박인순
대 회 고 문 : 이상훈·최승나·박영철·박인순·장순채·차선겸·김태진·황대연·강찬영·김현모·최성태·김문량·성용창·원영신·이창복·최동주·이교상·김종욱·박병원·김병진·조한철·구상회·강공선·함의현·최등열 강신봉·윤여화·원영수·윤태순·김문고·김명규·유영린·정철기·장영대·안수용·이한영·이대환·이준식·정길수·김순창·문인식·전경수. (무순)

본부임원장 : 심재환(88년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본부부임원장 : 이기훈·강준남·배용문.
본 부 임 원 : 조기연·백경락·정용필·고광남··원종필 김만구·이영현·박종수·이경태·손명수·이건영·표봉길·이대환·이인용·김용기·박주삼·심태섭·이용구·이영민·이호섭·장추신·석종윤·서정길·이종원·최이락·박종철·하영화·이영만·송종남·김용섭·원종성·신우원·김종호·이상철·차지윤·천용기.

대회총감독 : 황재필
총무 : 조충원　경기 : 박원모·서인현
기록 : 서만수　홍보 : 이을윤·김종환
섭외 : 변의섭　시설 : 장기철·이장성
진행 : 김상욱·김명환

MC : 이광민·김홍량·김정훈.

진행위원장 : 유용근
심판위원장 : 정세용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교민 단결 과시하자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후원 : 주캐나다대사관 한인연합회 토론토한국일보 몬트리얼총영사관 실업인협회 동우회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대한항공 외환은행 뱅쿠버총영사관 블루어번영회 무역인협회 KOTRA 노년회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교역자협의회